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불안과 좌절이 스며드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복음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을 부여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www.chpress.net

주후 2020년 9월 5일 (토) 제 1792

□ L.A.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Tel. 323-665-0009, 213-674-7982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전도 위한 가상현실 플랫폼 만들어졌다!

Presbyterianmission, 팬데믹시대 불신자 전도위한 사역 기반 확립 소개

크리스토퍼 베넥 목사는 교회를 가상현실(VR)로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계획을 수립했고, 이것을 "기독교 전도를 위한 사상 조류의 기반"이라 말한다. 플로리다 남부에 거주하는 베넥은 퍼스트마이애미장로교회의 목사이며 'CoCreators'의 창립 목사이자 CEO다. 트로피컬 플로리다노회는 "더 나은 사람,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세상"을 모토로

하는 신흥 기술기반 사역을 하나의 검증된 사역으로 인정하고 있다(Virtual reality platform for churches creates 'unparalleled ground for Christian evangelism'). 미국장로교(PCUSA) 산하 선교국(Presbyterianmission)은 팬데믹 시대를 맞아 불신자 전도를 위한 사역으로 가상현실 플랫폼을 소개했다.

베넥은 피츠버그신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 가상현실(VR, virtual reality) 사역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과 신학에 초점을 맞춘 세계 최초 목회학박사 프로그램 코호트의 일원이었다. 신학교에서 베넥은 인공지능, 로봇공학 및 트랜스휴머니즘 같은 신기술과 이러한 것들이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초점을 두고 연구했다. 그는 가상현실 플랫폼의 어마어마한 사역적 잠재력을 예견하기 시작했고, 교회 지도자들이 가상공간에서 사역을 발전시키는 일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고자 했다.



CHVRCH+는 가상현실 플랫폼에서의 최초의 가상교회 동료로, 교회 지도자들이 가상공간에서 그들의 사역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2014년, 페이스북(Facebook)이 가상현실 게임 스타트업인 오쿨러스(Oculus)를 20억 달러에 인수했을 때, 베넥은 자신이 뭔가 제대로 몰랐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는 가상현실을 사역으로 도입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현재 게이머로 식별되는 22억 명의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시킬지에 대한 것이었다. 2018년, 그는 새로운 예배 공동체들을 지원하는 1001 씨드 보조금을 신청하고 이를 승인 받아 (교단에서 지원하는) 미션 프로그램 보조금 7,500달러를 받았다. 이것은 가상현실 속 교회의 교제를 구축하는 일에 필요한 장비와 개발을 위한 자금이었다.

베넥은 가상현실 속에서 교회를 구축하기 위해 먼저 교회를 가상으로 재현하는 일을 실행했다. 개발을 시작하자 그는 가상현실이 "기술개발의 서부"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생각한 비유)와도 같다는 것을 금세 깨달았다. 현재 세대인 "VRCHAT" 같은 가상 프로그램조차도 여러모로 제한적인 사항들이 많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VRCHAT" 같은 경우는 참가자들이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 가상세계를 만들고 게시하고 탐색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플랫폼 관련문제로 사용자 인원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한 서버 안에서 한 번에 40명까지만 수용 가능하다.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최적화되지 않은 아바타

로 입장하게 되면, 렉에 걸리거나 사용자들이 강퇴(강제퇴가)를 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컴퓨터가 멈춰버리기도 한다고 베넥은 말했다. 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커뮤니티들은 현재로서는 그다지 건전하지 않은 경향이 있다. 베넥은 "만약 당신이 문외한이라면, 코딩의 취약성으로 인해 부정적이거나 선동적인 글에 영향을 받거나 심지어 해킹을 당할 수도 있다"고 말한다. 그는 가상 환경에서 교회의 친교를 재현하기 위해 무엇인가 구축하려면 이러한 플랫폼 문제들을 해결해야만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CoCreators'는 세계적인 개발자들과 협력하여

'NOVA'라는 새로운 가상현실 플랫폼을 만들었다. 'NOVA' 상에서 그들은 'Magnum Opus'라는 가상현실 대규모 다중사용자 온라인 롤플레잉 게임 (Massive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 또는 MMORPG)을 제작하고 있다. 베넥은 이 게임의 줄거리가 기독교의 미덕들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CoCreator's'는 이미 페이스북에서 9000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은 본 게임을 11월에 단계별로 런칭하고자 한다. 'Magnum Opus'의 개발은 'CoCreators'와 그들의 동역자들로 하여금 'NOVA' 가상현실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고, 이것은 가상교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안정적인 가상 환경을 허락했다. 베넥은 'NOVA'가 최대의 안전과 보안을 유지하고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사용자를 수용할 수 있는 최적화된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는 평균적인 플랫폼과 비교했을 때 2.5배를 뛰어넘는 수치다. (3면으로 계속)



기감 미주자치연회 화상연회 준비위원들이 연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기감 미주자치연회 첫 감독 화상선거 8월 12일 화상연회, 임승호 목사 무투표 당선

기독교대한감리회 미주자치연회(감독 은희곤 목사) 2020 연회가 지난 8월 12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미주자치연회는 원래 5월 5일 하와이에서 연회를 개최하기로 예정됐지만 팬데믹으로 온라인 화상연회로 일정이 변경돼 7월 2일 화상으로 급한 행정처리를 하고 8월로 연회를 연기했으나 역시 이동 집회 제한 명령과 연회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다시 화상연회로 모였다. 화상연회본부는 버지니아 열방 사랑교회(감리사 김성도)로 삼고 감독과 총무 서기 실무진들이 모여 진행했다. 미국, 캐나다, 멕시코, 도미니카 등 각 지방별로 1-3회선까지 배당을 하고 지방별로 모여 총 50여 선을 사용해 화상회의를 진행했다. 목사인수는 대상자 10명 중 5명이 화상연회 본부가 있는 버지니아로 와서 안수를 받았으며 나머지 5명은 2021년 연회에서 목사안

수를 받게 됐다. 은퇴찬화, 별세추모 등은 모두 행정적으로 처리만 하고 예식은 내년도에 하기로 결의했다. 이어진 감독선거는 온라인으로 연회실행부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넘겼으며 이중 2명이 사퇴하고 임승호 목사(LA 빌라델피아교회)가 무투표 당선됐다. 기감 역사상 처음으로 자치법에 따른 간접선거를 치러진 이번 온라인 화상선거에 대해 캐나다 서지방 감리사 김병태 목사(동행교회)는 "△선거가 과열되지 않는다: 실행부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위원들이 실행부 위원들을 제외하고 감독후보를 1명씩 적어내는 과정으로 3명으로 정리한다. △사전 선거운동이 원천 방지된다: 선거인단이 소수이나 실행위원회가 열리는 동안 선거위가 지방별로 선거인단을 추천하고 뽑는 과정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선거운동은 (10면으로 계속)

		
3면	4면	15면
시론 은희곤 목사	푸른초장 장우호 목사	팬데믹 시대의 선교... 어린이전도협회

월드 미션 대학교
신학/상담학/음악학/예배학/간호학/사회복지학
캠퍼스 | 온라인
www.wmu.edu | 500 Shatto Pl., Los Angeles | (213)388-1000

성경암, 성경대디, 그리고 자녀들의 상한 마음치유를 돕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한부모 가정 모임
LA 비전교회 협력사역
520 S. Lafayette Park Pl #200
213-386-9191, 949-627-1452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chpress.com / chp@1919.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동시통역기, 성가곡집 주문 제작, 타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530-8080 | biblestore@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웨딩, 장례식 전문
사랑을 전합니다
Florist 나비꽃집 NABI
대표: 장효종(뉴욕 크리스천 코럴)
718-286-9920
email: floristnabi@gmail.com
44-29 Douglaston Parkway Douglaston, NY 11363

발행인 칼럼

가을이 오면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그렇게 여름은 지났다. 이제 9월이다. 가을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날 이후 나는 가을의 문턱을 쉽게 넘어갈 수 없었다. 나 뿐만이 아니라.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있었던 그 일 때문이다. 그날 저녁부터 교회에서 있을 세미나의 강사 목사님을 맞으러 뉴저지의 뉴욕 공황을 향해 아침 일찍 가던 길이었다. 맨해튼을 통과해가려는데 평소와는 다른 풍경이 벌어졌다. 분주한 사이렌 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의 다급한 행렬이 이어졌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덮어갈 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큰 일이 벌어진 것을 알게 되었고 점차 방송을 통해 비행기 테러가 도쳐 있었음을 듣게 되었다. 도무지 잊을 수 없는 장면들을 눈앞에서 그리고 맨해튼을 빠져나가 뉴저지에서 바라보게 되었다. 그 날 밤늦게 교회로 돌아왔다. 청년들을 비롯 교우들이 본당에 가득히 앉드려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다. 청년들 중에 그날 무너진 세계무역센터에 출근한 두 명이 연락이 안 났음을 알았고 그 중의 한명은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그 날 수천 명이 죽고 오늘까지 많은 후유증이 이어지는 9.11이 가을 문턱에 있어 매년 가을로 들어서기가 쉽지 않다.

가을이 오면 내겐 수십 년 전의 향기가 찾아온다. 모교 고등학교에서 매년 가을에 국화전시회가 있었다. 국화가 그렇게 아름다운 줄, 그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는 줄, 그토록 진한 향기를 내뿜는 줄 예전에 몰랐다. 그때 그 국화 옆에서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를 떠 올리기도 했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머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림과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머언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인제는 돌아와 겨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며/ 노오란 네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그리고 보니 다양한 색채의 국화 향기는 다섯 누님들의 향기였다. 내게는 누님이 다섯 분이 계시다. 한 분은 천국에, 네 분은 이 땅에. 국화 향기와 누님들의 신앙 향기가 나를 적시는 가을이다.

가을은 기도의 계절이다. 찬바람 이는 가을은 속물 같이 끈적끈적하게 살았던 여름 삶을 내려놓고 영혼을 맑게 정화시켜야 할 기도의 계절이 아니던가. 그래서 김현승 시인의 가을 기도가 이제는 나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어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가을에는 호화로 있게 하소서...../ 나의 영혼/ 굶어치는 바다와 백함의 골짜기를 지나/ 마른 나뭇가지 위에 다른 까마귀같이” 그렇다. 기도 없이 가꾸어질 가을의 열매는 아무 것도 없다.

늦가을에는 감장을 해야 한다. 동네 집집마다 쌓아둔 배추를 오늘은 이집 내일은 저 집에 몰려가서 배추를 소금물에 절구고 빨강계 속을 버무려 장독에 차곡차곡 쌓아 겨울을 준비하는 감장의 계절이 가을이다. 그렇다. 겨울 맛을 채비 없이 단풍 구경만하고 가을을 보낼 수는 없다. 우리 삶에 가을이란 계절이 있음은 영적으로 얼마나 유익이 되지는 모른다. 하나님 만날 준비가 필요함을 일깨워주는 가을이 나는 너무 좋다. 가을이 뚜렷이 없는 동네에 사는 분들에게 괜히 미안하다. 그러나 그곳에는 항상 온화함과 쾌정함이 있지 않은가.

미국의 수호자 vs. 품위있는 통합가

미 언론, 민주공화 양당 전당대회 취재 통해 ‘2020년 대통령선거 공약비교 및 예측

민주, 공화 양당은 전당대회를 마침으로 이제 두 달 후 치러질 ‘2020년 대통령선거 총력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워 현 트럼프 대통령과는 철저히 다른 전략으로 백악관 탈환을 준비하고 있다. 바로 인간적 “품위”를 앞세워 “통합가”로서 미국사회를 재정비하겠다는 공언하고 있다.

반면 집권 2기를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 행정부 정책과

상당수 맞물려있는 공약들을 발표했다. 바로 “미국의 수호자”로서 좌파 세력의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미국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나갈 것이라며 대선후보 수락연설 메시지를 전했다.

양당의 전당대회 분위기를 살펴보면 두 후보의 대선 경쟁 레이스를 조망해본다.

민주당 조 바이든

미셸 오바마도 말했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도 말했다. 공화당의 존 케이식 전 오하이오 주지사도 말했다. 나를 동안 진행된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 연사로 나선 인물들은 반복해서 똑같은 형용사로 조 바이든을 묘사했다. 바로 “품위 있는(decent)”이라는 단어다.

원격으로 진행된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은 ‘빅텐트’의 이미지를 그려내기 위해 전략을 쏟았다. 즉 진보주의자, 리버럴, 중도 성향의 공화당원, 트럼프에게서 이탈한 유권자 등 모든 사람들이 하나의 약속 아래 뭉칠 수 있다는 것이다. ‘바이든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나은 인간’이라는 약속 말이다.

그처럼 다양한 유권자들의 연합체를 모두 단합하게 만들 정책은 그리 많지 않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내용은 보기 힘들었던 이유다. 바이든의 건강보험 정책이나 화석연료 산업 지원금 폐지 입장 철회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거나 없었나 싶었다.

그 대신 나흘 동안 이어진 전당대회 내내 집중적으

로 13세 소년은 비슷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바이든이 자신의 연설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줬다고 말했다.

“저는 그저 평범한 어린이입니다.” 해링턴이 말했다. “짧은 시간 동안 조 바이든은 저를 평생 동안 괴롭혔던 문제에 대해 더 많은 자신감을 심어줬습니다. 조 바이든은 저를 보살폈습니다. 그가 우

고, 그의 공손한 태도 때문에 그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유권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바이든은 또한 인프라 재건을 통해 경제를 살리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한 재원은 트럼프의 부유층 및 대기업 감세 철회를 통해 조달할 계획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나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이민 개혁, 총기규제,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바이든이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많은 이해심과 연민을 가지고 있는지, 종교적(가톨릭) 신념과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경험은 어떻게 그의 삶과 당을 초월하는 의정활동 스타일을 형성하게 됐는지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언급됐다.



트럼프 대통령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

민주 조 바이든: 품위 앞세워 트럼프 공격, 실질적 공약은 없어
공화 트럼프: 정치기득권 붕괴 등 4년 치적 통해 ‘위대한 미국’ 부각

“(후보자의 이름뿐만이 아니라) 품성이 투표용지에 올라 있습니다. 연민이 올라옵니다. 품위, 과학, 민주주의. 그 모든 것들이 투표용지에 올라 있습니다.” 바이든이 지난 달 20일 밤 대선후보 수락연설에서 말했다. “어떤 쪽을 선택할지 이보다 더 분명할 수는 없습니다. 수식어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팩트만 가지고 현 대통령을 평가해봅시다.”

로 거론된 건 바로 바이든의 성품이었다. 그는 손주들에게 매일 전화를 거는 할아버지라고 바이든의 손녀는 말했다. 의회 직원의 할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느라 TV 인터뷰 약속에 늦은 일화도 소개됐다.

아마도 나흘간의 전당대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을 만한 순간은 뉴햄프셔에 사는 브레이든 해링턴의 연설이었을 것이다. 말을 더듬는

리 모두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한 번 상상해보세요.”

“저에게 대통령직을 맡겨 주시면 저는 우리의 가장 나쁜 면모가 아니라 가장 좋은 면모에 의지할 것입니다. 저는 어둠이 아니라 빛의 동맹이 될 것입니다.” 바이든이 수락연설에서 한 말이다.

바이든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늘 자신의 성품을 강조해왔다. 그는 “미국의 정신”을 되찾아야 한다고 호소했

“조 바이든을 통해 우리는 연민을 느낄 줄 알고, 정직하고, 품위있는 인간을 (지도자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버니 샌더스가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나섰던 다른 여섯 명의 후보자들과 나눈 대화에서 말했다. “미국 역사에서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이 나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입니다.”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기독서적/일일세탁/베스트셀러/성구/성화 액자/가운/교회용품/영문성경/영문기독서적
교회·사업체·달력·기념배전문
뉴욕 Tel. 718)762-0011 뉴저지 Tel.201)346-0030
www.bestsaver.us 917-863-0301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www.chpress.net
기발한 광고의 주인공이 되세요
미주 지역 매주 7천부 배포, 확실한 광고 효과
광고문의: 347-223-1531 718-886-4400
chpress.kjs@gmail.com info@chpress.net

Joon Mo Myung, MD **명준모 위장간 내과**
진료과목: -무통 위 내시경, -무통 대장 내시경,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지검사, 지방간, -각종 소화기 질환, -최신 특수검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베데스다치과 Bethesda Dental
예약문의 646.422.7330 201.431.9753
353 Lexington Ave, Ste 1600-2 New York, NY 10016
의뢰인 이규성 원장
진료.안.내 -저이식(임플란트), -구강외과, 틀니, -보철치과, -미용성형치과, -신경 및 잇몸치료

2020년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하나님과 이웃과 세계를 섬기는 예수의 사랑 공동체"라는 비전을 가지고 창립된 본 교회는 아래와 같이 제 19회 뉴라이프교회 장학생을 모집 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응모자격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 민족으로서 재정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며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자.
- 현재 신학교나 대학(원)에서 신학을 전공하고 있는 재학생 또는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서 대학이나 대학원에 재학중인 자.
- 현재 재학중인 학교에서 대학원과정은 최소 8학점, 학사과정은 최소 15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균GPA가 B이상이어야 함.

선발인원 7명: 각 \$1,500

제출서류 1. 신청서(본교회 소정양식) - 신청서는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신앙 간증문 및 비전(2페이지 이하)
3. 추천서 2부. 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4. 성적 증명서

신청서류 보낼곳 New Life Church of Chicago Scholarship Committee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응모마감 2020년 10월 31일

수여자 발표 2020년 12월 13일, 본 교회 홈페이지에서 발표됩니다.

본 장학생 모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먼저 본 교회 홈페이지(www.newlife-chicago.org)를 참조하시고, 이메일(newlifechurchscholarship@gmail.com)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라이프교회 New Life Church
1200 W. Northwest Hwy., Palatine, IL 60067
T. 847-359-5200 F. 847-359-8409
www.newlife-chicago.org

크리스천 문화사역 Hisfinger.com

heavens stars moon hisfinger

When I consider your heavens, the work of your fingers, the moon and the stars, which you have set in place. - Psalms 8:3

Hisfinger Collection VOL.1 / Psalms 8:3

시위 한복판에서 복음을...

(1면에서 계속)

베넥은 “가상현실 교회들이 자신들의 지역교회를 거닐 듯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하듯 기타 플랫폼들을 이용해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선교 현장이 그렇듯이, 일단 관심을 갖고 더 알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이들을 더욱 안정적인 플랫폼으로 초대하는데, 바로 이것이 제자들을 위한 적절한 환경을 제공하지요.”

성경 연구를 통해 이뤄진 가상의 연결고리 덕분에, 사람들은 크리스토퍼 베넥 목사에게 어떻게 그가 섬기는 물리적 교회에 디지털 방식으로 관여할 수 있는지 물어보기 시작했다.

플랫폼 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CoCreators’의 가상현실 개발자들은 ‘NOVA’ 상에서 ‘CHVRCH+’라는 그들의 가상교회모임을 만들었다. 첫 번째 가상 건물은 마야에서 가장 오래된 조교교회인 퍼스트마이에미장로교회를 따라 설계됐다.

현재 베넥은 ‘VRCHAT’에서 ‘CHVRCH+’ 성경공부를 시작해 진행 중이다. ‘VRCHAT’은 현재 4백만 명 이상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다. 한 달 만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5대륙 20개 이상의 국가를 대표하는 ‘CHVRCH+’의 ‘Discord’ 서버에 가입했다.

“한 젊은 여성 접속자는

무신론자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다른 여성 접속자는 장애가 있고 교회에 도달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고 베넥은 말했다. “그리고 또 다른 접속자는 무슬림이 우세한 국가에 살고 있으며 아직 출석할 지역교회를 찾지 못한 사람이었지요.”

베넥은 사람들과 가상관계를 구축하면서 (자신이 섬기고 있는) 퍼스트마이에미의 디지털 성장 그룹에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초대하고, 가상현실에서 지역교회로 사람들을 데려오기도 한다. 그는 사역을 시작할 한 달 만에 사람들이 어떤 권유도 없이 기부하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베넥은 또한 트위치(Twitch)에서 ‘CHVRCH+’의 가상성경공부를 스트리밍하기 시작했다. 아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이 스트리밍 서비스회사는 주된 타겟이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지만, 서비스의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작년에 미국 프로미식축구연맹(NFL)경기들부터 시작해 대통령의 국정보고(State of the Union Address)까지 스트리밍하며 하루에 1,500만 명 이상의 시청자를 수용했다.

베넥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그것이 시정을 원하는 사람들의 재정적 장벽을 제거해주고 사역에 지속 가능한 수입을 제공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를 들어 아마존

프라임(Amazon Prime) 회원의 경우 트위치 계정으로 이동해 아마존 프라임 계정을 트위치에 연동시킬 수 있다. 일단 그렇게 연동하면 프라임 구독자들은 그의 채널을 무료로 구독할 수 있는 것이다. 매달 그렇게 하는 사용자마다 무료로 2.50달러를 ‘CHVRCH+’에 기부할 수 있게 된다.

“매월 무료로 기부하는 것이지만 정작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버리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제일 멋진 것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확장 가능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처음에 ‘CHVRCH+’는 그저 가상교회에서 교체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수단이 되고, 수백 개의 새로운 가상교회를 시작하는 일에 도움이 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지요. 이제 ‘CHVRCH+’ 개발팀을 통해 어떤 교회든지 안정적인이고, 비용 효율이 높으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가상현실 사역을 할 수 있어요.”

베넥은 ‘CoCreators’의 디자인 팀이 가상 교회와 환경을 구축하고, 지속 가능한 가상사역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지도할 수 있도록 수많은 교회들이 이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금 이상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베넥은 그들이 이처럼 많은 것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예배공동체들을 지원하는 1001 초기 보조금이 없었다면 그 어떤 것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 당시 체계는 이러한 가상커뮤니티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기술과 개발을 뒷받침할 재정적 여유가 없었지요. 게다가 트로피컬 플로리다 노회의 지속적인 지원은 또 얼마나 귀중했는지 몰라요”라고 그는 말했다.

현재 베넥이 지속적인 학습을 기반으로 확신하는 것은 청지기적 관점에서 볼 때 가상사역이 현장사역보다 비용 면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미래의 세계교회를 위한 지속가능한 모델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팬데믹이 디지털 사역에 대한 신학적 논의를 상당히 발전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에 비해 가상사역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어요”라고 그는 언급했다. “그러한 이유만으로도 미국장로교(PCUSA) 소속 교회들은 이에 관여하고 우리가 만든 이 공간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할 가치가 있지요.”

2012년 제 220회 미국장로교총회는 향후 10년에 걸쳐 1001개의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전교회 운동에 대한 공약을 선언했다. 아직은 미약한 단계지만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약 600개의 다양한 “1001” 커뮤니티들이 형성됐다.



시론

응가하는 인형



은희곤 목사 (뉴욕 참사랑교회)

“유럽 스페인에는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화려한 것들이 많습니다. 천재 건축가 가우디의 도시 바르셀로나에는 건축을 시작한 지 100년도 넘었지만 아직도 완성되지 않은 '사그라다 파밀리아' 대성당의 위풍당당한 모습이 있고, 꿈과 동화 같은 알록달록한 색채를 가진 구엘 공원이 있습니다. 유럽 최고의 명절 중 하나인 크리스마스를 위한 시장도 있는데 바르셀로나 대성당 앞에서 열리는 산타루치아 마켓은 유럽 전역에서도 알아주는 크리스마스 시장입니다. 300개가 넘는 가게로 이루어진 산타루치아 마켓에서는 독특한 모양의 인형을 파는 가게가 있습니다. 인형의 종류는 종교지도자, 유명한 가수, 애니메이션 캐릭터 등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 인형 모두가 바지를 내리고 쭈그리고 앉아 힘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처럼 가게에서 파는 인형은 모두 응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찰리 채플린, 엘비스 프레슬리, 도라에몽, 호머 심슨 심지어 대통령도 교황도 바지를 내리고 힘을 주고 있습니다. 까가네라는 이름의 응가하는 인형은 사람은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권력이 있으나 없으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모두 다 불의를 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본질적으로 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역은 글).

모든 차별 금지를 응가하는 인형을 통하여 해학스럽게 전하는 지혜가 참 신선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축하하는 크리스마스 마켓에서 말입니다. 세상에 많은 차별들이 존재합니다. 인종과 성별의 차별, 지식 재물 힘 권력 명예 등등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별은 항상 존재해왔고 지금도 존재하지만 앞으로는 존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사는 지역에는 흑인들이 많이 삽니다. 그들 가운데 들어가 혼자 있을 때면 그들의 선한 눈과 따뜻한 마음을 마주함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는 어색함과 두려움을 느낍니다. 몇 년 전에 아프리카 케냐에서 30년 넘게 사역하신 선교사 부부와 함께 잠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가 아프리카네요” 하며 스스럼없이 그들에게 다가가 자연스러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됨에 대해 진한 감동을 가졌습니다.

근래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얼마 전 5월 25일 흑인 조지 플로이드(46)가 경찰 무릎에 목이 눌린 채 숨을 헐떡이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I can't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어요”라는 절박한 간청에도 아랑곳없이 백인 경찰들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말을 할 수 있으면 관참은 건데”라는 잔혹한 말을 남기며 그의 목을 무릎으로 계속 짓눌렀습니다. 8분 46초 “엄마, 엄마”를 외치며 “숨을 쉴 수 없어요”라고 16번 간청했는데도, 시민들이 죽을지도 모르니 제발 그만하라고 외쳤는데도, 백인 경찰관 데렉 쇼넨이 무릎으로 희생자 조지 플로이드 목을 누른 시간입니다. 조지 플로이드는 그 자리에서 운명하였습니다. 3개월 후 8월 23일 위스콘신 주에서 발생한 흑인 남성 제이컵 블레이크(29) 사건. 블레이크가 운전석 쪽 차 문을 열고 차량 안쪽으로 고개를 숙였고 이때 바로 뒤에 접근한 경찰관이 그의 상의를 손으로 잡아끌며 7차례나 총을 발사해 그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장면을 차 안에 타고 있었던 브레이크의 세 아들이 목격 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제 2의, 제 3의 조지 플로이드와 제이컵 블레이크 가 나와야 인종차별이 없어질까요?

이 가운데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으로 촉발된 미국의 시위현장에서 백인소녀가 경찰로부터 흑인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서 35초 분량의 영상이 트위터에 공개됐습니다. 영상은 경찰 앞에 선 흑인소년이 양손을 들어 보이는 장면으로 시작됐는데 소년은 자신은 위협을 가할 생각이 없다는 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군중 틈에서 책가방을 멘 백인소녀가 등장했고 그 소녀는 망설임 없이 걸어가 소년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백인소녀는 흑인소년과 똑같이 양손을 든 채 무릎을 꿇으면서도, 한쪽 팔로는 소년을 보호했습니다. 경찰 4명이 거리를 좁혀왔지만 두려운 기색은 없었습니다. 경찰이 소녀의 팔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려 하자, 소녀는 뒤로 돌아 소년을 감싸 안았습니다. 백인소녀는 흑인소년을 붙잡고 온 몸으로 보호했습니다. 그러자 이들 주변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흑인 2명 앞으로 백인 4-5명이 장벽처럼 섰습니다. 다른 백인들도 하나둘씩 합류했습니다.

하나님을 자유롭게 믿고 싶어서 건너온 청교도들이 세운 이 나라 미국에서 어떻게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이렇게 거역하는지 그저 멍멍하기만 합니다. 제 개인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이 지면을 통해 한 가지 제안은, 미국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들만이라도 자기 지역에 있는 경찰관들에게 “응가하는 인형”의 의미를 설명해주고 전달하는 일입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작은 보탬이 되기를 바라고 더 이상 이런 일들이 이 땅 미국에서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입니다.

pastor.eun@gmail.com

미국의 수호자 vs. 품위있는 통합가

(2면에서 계속)

바이든이 구체적인 정책을 언급한 한 분야는 바로 코로나19 팬데믹 대응 계획이었다. 그는 신속하고 믿을 수 있는 검사를 도입하고, 필수 의료장비를 미국에서 생산하고 공중보건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학교 문을 다시 열 수 있도록 하고

모든 미국인들에게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은 이 나라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임무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우리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는 미국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바이든이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국민 여러분, 이걸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편 백악관을 배경으로 마련된 거대한 무대에 오른 트럼프는 지난 4년 동안 자신이 이뤄낸 성과들을

자랑했고, 자신이 ‘미국의 꿈’을 지켜낼 유일한 인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https://www.donaldjtrump.com/media/trump-campaign-announces-president-trumps-2nd-term-agenda-fighting-for-you)에 가만 접근 2기 공약들을 다 볼 수 있다).

(4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 편집국장: 유원정 ■ LA지사장: 이성자

· L.A. Office
·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 Tel. (323) 665-0009 (대표) (213) 674-7982
·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 Tel. (718) 986-4400 (대표)
· Fax (718) 986-0074 (대표)
· E-mail: nyk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New Years Day and April 18, July 4, and Nov 28.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주최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해외 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영적으로 성숙해 가기를 바라는 취지에서 본 언론협회는 제6회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를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많이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방법: 추천도서 5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레터 또는 A4 사이즈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이며 제출 마감은 2020년 10월 31일 오후 5시 (미 서부시간 기준)
 - 제출처: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으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주 주소를 꼭 명기해 주십시오
 - 시상: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5일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립니다.
- * 참가자 전원에게는 참가상이 주어집니다
* 이미 수상 경력이 있으신 분은 3년 동안 수상대상에서 제외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천 도서	자유로운 영혼의 노래를 부르며 신영, 시와정신사	모두 거짓말을 한다 앤드루 로이드 웨스턴, 대니얼 데이비스	침묵 앤드루 슈사쿠 흥성사	말그릇 김윤나 카시오메아	독독한 사람들의 명칭한 선택 리처드 탈라, 리더스북
회원사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교방송(LA, 미국), 미주기독교신문(시애틀, 미국), 미주복음방송(애너하임,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뉴욕,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 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저널(시카고,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LA, 미국),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LA, 미국), 크리스천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CHTV 크리스천 헤럴드(LA, 미국),				

후원	기독교서점협회(회장 전인철 목사)	복음사 562-865-4949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도르가 서점 714-636-7430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주최: 세계한인기독교언론협회 (회장 조명환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목사의 목상

이종식 목사

(뉴욕 베이사이드장로교회)



감옥생활에서 꽃을 피우는 하나님

얼마 전 어느 여 성도님을 통하여 아름다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항상 건강하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갑자기 아파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폐병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

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입원까지 했고 위급한 환자가 가는 ICU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아이가 그렇게 되자 그 여 성도님은 입원실에서 딸과 함께 간 이침대를 놓고 숙식을 하며 지

내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내가 아프니 엄마도 함께 아프다는 의미로 같은 환자의 옷을 입고 지내는 것이라고 딸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이는 가끔 혈압이 급속히 떨어지며 몸을 떨었고 그럴 때마다 그 여 성도님은 침대 밑에 엎드려 울며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는 10여 일을 병원에서 지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아지고 퇴원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 성도님은 그동안 병원에서 있었던 일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이번 딸의 갑작스러운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것이 달라졌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건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까지 펜데믹 이전부터 나빠진 사업의 사정을 생각하며 걱정을

많이 했는데 딸이 아프니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족의 건강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그동안 가족 모두가 건강하게 산 것에 대한 감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질에 대한 염려를 버리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의 일로 딸의 신앙이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병에 걸려 사신을 넘나들면서 낫게 된 딸은 어려서부터 믿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었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결단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춘기를 통과하면서 서먹서먹해졌던 딸과 엄마의 관계가 새롭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딸이 입원기간 내내 옆에서 함께 자며 딸을 돌봐준 엄마의 사랑을 새롭게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은 푸른색의 환자복을 입고

지낸 것이 마치 감옥생활을 함께 한 사람처럼 느껴져서 동지 의식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이 지금의 펜데믹을 통하여 우리로 그런 것들을 깨닫게 하시려는 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펜데믹을 통과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닌 가족의 건강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지낼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감사하지 못한 건강에 대하여 감사하며 지내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펜데믹을 통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형편에서 우리는 이 전에 정상적인 삶에서는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갖게 되었을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저 자신도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서 기도시간이 많이 늘어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

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번의 펜데믹은 우리로 그동안 서먹서먹했던 하나님과 새로운 깊은 교제를 갖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여 성도님이 아픈 딸의 병실을 떠나지 못하고 함께 숙식을 하였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이 이 어려운 때를 통과하는 우리와 함께하심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함께 당하시며 우리가 모든 것에서 새롭게 될 것을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강건한 믿음으로 이 세상을 이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을 발하며 살기를 바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펜데믹은 감옥생활 같으나 그 일을 통해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david2lord@hotmail.com

푸/른/초/장

장용호 목사

(엘파소 열린문장로교회)



다. 바다매오는 거지이다. 그는 가진 것이 없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이름마저도 없는 사람이다. 아버지의 이름이 디매오의 아들로 살고 있다. 그리고 돌봄을 받아야 할 맹인이다. 여리고에는 성전에서 종사하는 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저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셨다.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의 참 정신을 깨닫고 시행을 하게 되면 여리고에는 가난하고 배고픈 자가 없어야 한다. 그런데 그곳에 거지 바다매오가 길에 앉아 있음을 탄탄하시느 것이다.

반면에 여리고에서 칭찬을 받는 삭개오가 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회개와 아울러 율법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음을 소개하

준 삭개오를 소개하고 있다.

마지막 날에 영광을 받는 자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징계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방신을 섬긴 것이고, 이웃을 향하여 악행을 한 것으로 말미암았다. 여전히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모습으로 알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막12:40). 그래서 그들은 마지막 때에 이웃의 것을 빼앗았으므로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을 받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날의 판결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이다. 본문의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는 자는 형제 중에 지극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창조된 자들만이 할 수 있다. 그러한 능력을 이미 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다.

말씀을 맺으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COVID-19 사태로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이때에 가난하고 소외당하는 자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그리고 주님께 서 세우신 교회 주변에는 굶주리는 자가 없어야 한다. 그렇게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복을 지속적으로 내려 주신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싶으면 먼저 받고 싶은 그대로 이웃에게 행하라는 것이다. 이것이 율법이며,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리할 때에 교회 공동체에 감사와 복이 넘치게 된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것을 약속하셨다.

COVID-19 사태를 맞이하면서 무슨 특별한 대책이 있었는가. 안전규칙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 그리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게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는 오히려 복이 넘치게 된다. 그래서 신자들은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소망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아버지께 복을 받는 방식을 몸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그분이 가진 길을 순종하며 따라 가면 된다. 그 길은 천국으로 가는 길이요, 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nybabo@gmail.com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 받으라

마태복음 25장 31-40절

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신26:11).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복을 이웃과 함께 나누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 백성이 지켜야 할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 백성에게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를 할 수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율법을 준 행한 자에게 복을 주신다.

다. 그리할 때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장구한다고 약속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하담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다매오가 길 가에 앉았다”(막 10:46)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며 소리를 지른

고 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감절이나 갚겠나이다”(눅 19:8).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속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웃을 사랑하는가에 있다. 여리고 성 안에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가에 비교를 하신 것이다. 율법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않는 레위인들이 있었고, 말씀에 순종하여 재산에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히 작은 자 하나에게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한 자이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마 25:40).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섬기는 자는 복을 받는 약속이다. 주된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물을 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고, 병든 자에게 약을 발라 주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일을 아무나 할 수 없다.

미국의 수호자 vs. 품위있는 통합가

(3면에서 계속)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주당 조 바이든이 당선된다면 거리는 무법과 폭력으로 뒤덮이고, 미국인들의 헌법적 자유와 권리가 침해되며, 그동안 미국이라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국가가 이뤄낸 모든 업적들이 파괴될 것이라고, 트럼프는 주장했다. 그는 ‘불법외국인’들을 막겠다고 약속했고, 총기소유권을 보호하고 낙태를 지지하겠다고 약속했고, 해외로 빠져나갔던 일자리를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세금을 낮추고 화석연료 규제완화를

통해 “에너지 독립”을 이루겠다는 약속도 빠지지 않았다.

그 무엇보다, 미국이 “급진적인 민주당”의 손에서 “사회주의”로 넘어가지 않겠다고 트럼프는 말했다. 자신을 미국의 수호자로 내세운 것이다.

“우리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지금 위협에 처했습니다.” 트럼프가 선언했다. “이 선거가 우리가 미국의 삶의 방식을 지켜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완전히 뒤엎고 파괴할 급진적인 운동을 허용할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자신의 첫 번째 임기 동안 이뤄낸 성공은 정치적

아웃사이더를 원하는 ‘보통사람들’ 덕분이었다고 말했고, 자신이 그동안 워싱턴 정치권의 엘리트 정치인들과 싸워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이전의 삶, 좋은 삶이었습니다만 이전의 삶을 떠났던 그 순간부터 저는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 싸웠습니다.” 트럼프의 말이다. “저는 정치 기득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절대 용서하지 못할 일들을 해냈습니다. 바로 워싱턴 정치의 기본적인 규칙을 깨가면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지켜낸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재난지원금, “가장 빠른(경제)회복 속도”, “이 나라 역사상 최대” 규모인 신규 일자리수

등을 자신의 성과로 내세웠다. “최대한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우리는 과학과 팩트, 데이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는 최근 위스콘신주 커노사에서 발생한 경찰의 흑인 과잉총격 사건으로 인한 시위를 언급하며 자신을 “법과 질서”의 수호자로 묘사했다. “경찰의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사법체계가 잘못된 일을 저지른 사람에게 철저하고 완전한 책임을 물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을 결코 내버려두서는 안 됩니다. 폭도들이(거리)를 지배하도록 놓아두어서는 안 됩니다.”

바이든이 자신을 ‘공감능력

없는 인물’로 묘사한 것에 대응 하듯 트럼프는 “미시간, 오하이오, 뉴햄프셔, 펜실베이니아의 해고된 노동자들은 조 바이든의 공화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일 자리를 되찾아오고 싶어한다”고도 했다. 모두 경합주로 분류되는 지역들이다.

“조 바이든은 미국 정신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그는 미국 일 자리의 파괴자입니다. 그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는 미국적 위대함의 파괴자가 될 것입니다.” 트럼프는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 전국단위 및 경합주의 거의 모든 여론조사가 바이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점치고 있지만 4년 전의 빼아픈 예

측 실패 탓인지 선거전문가들은 확정적인 전망을 내놓는 데 극도로 신중한 분위기다. 간접선거의 특성상 득표율과는 다른 선거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는데다 바이든 후보의 빈약한 TV토론 실력,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에 뒤늦게 뛰어든 선거전략가 로저 스톤의 흑색선전, 여론조사에서는 침묵하던 ‘샤이 트럼프’ 유권자(Shy Trump Voters: 설문조사에서 자신의 본심을 말하지 않는 진보주의적 정책들을 좋아하지 않는 유권자들)의 선택 등도 선거판의 변수로 남아있다.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확연하게 다른 2개의 미국 미래를 보여준 DNC vs RNC 전당대회(상)

민주당 전당: 최초의 Digital National Convention (디지털 전용 프레젠테이션)

민주당 전당은 미국역사상 최초로 "디지털 전국 대통령 대회"를 시행했습니다. 참고로, 민주당 하원리더이자 대표인 Nancy Pelosi(낸시 펠로시)는 직접 조 바이든 대통령후보자에게 트럼프 대통령과의 디베이트(Debate)에 참가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해주었는데, 이번 디지털 전용 민주당 전당과 대통령 후보자들이 미국 시민들에게 당연히 보여줘야 할 디베이트에 참석하지 않을 것을 당부한 민주당 대표 낸시 펠로시의 당부는 우과뿐 아니라 좌파라고 하는 일반 시민들에게도 의아함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 여론들에 의하면 많은 일반 시민들이 D.N.C. 첫날 밤 연설을 하도록 초청 받았고,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 화면에 적응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디오 프레임의 한계를 이해하는 것 같았지만 반면에 일부 정치인들은 이런 디지털 형식에 어리둥절해 보였다는 여론도 있었습니다.

민주당 전당 첫날 가장 많이 나왔던 주요 내용들

△가장 중요한 것은 연합(unity)이다. △가장 많은 주요 내용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정부와 반응들 트럼프는 대통령 자리에서 절대로 적합하지 못한 시대에 뒤떨어지는 대통령! △현재 미국의 분단과 모든 문제들은 트럼프가 만들어 놓은 것들 △몇몇 연사들은 미국인들이 미국 우체국 및 우편 투표용지와 관련하여 진행 중인 문제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한다고 강

조했다. 미국에 대한 충성서약과 기도로 시작

스타들이 박힌 헌법 소개와 조 바이든의 다섯 명의 손주들이 가슴에 손을 얹은 충성 서약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플로리다의 목사이자 National Latino Evangelical Coalition의 대표인 Rev. Gabriel Salguero의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연설자들의 몇몇 하이라이트 워싱턴DC 시장인 Muriel Bowser는 그녀의 새로운 Black Lives Matter(BLM) Plaza를 보여주는 배경에 등장했습니다. (참고로, BLM의 설립자가 스스로 자신들은 공산주의 사상의 기초인 마르크시즘이 자신들이 따르는 기본사상임을 이미 공공연히 이야기한 바 있으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대도시들 안의 폭동과 폭력적인 시위들 역시 BLM과 그 단체와 연결된 조직들이 있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BLM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Tvnex.org에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오하이오의 전 공화당 주지사였지만 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온 John Kasich는 실제 교차로의 중심에 서있는 모습으로 연설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뉴욕주지사 Andrew

Cuomo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Division(분단)이 barrier를 물리치는 게 아니라 강한 몸이 코로나바이러스를 물리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나라에서 분단을 만들지 않았다. 분단이 "트럼프를 만들었다." △물론 우리는 마스크를 쓸 것이다. 우리는 똑똑하기 때문이다. 물론 사회적 거리를 둘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조 바이든이 바로 미국을 강하게 만들 사람이다.(Joe Biden is what I call America tough). 그 외 미시건주, 미네소타주에서 나온 지지자들도 모두 팬데믹과 트럼프의 부적합한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별몬트의 버니 샌더스는 나왔던 모든 연설자들 중 유일하게 바이든의 정책이 왜 필요한지 다음처럼 강력히 주장한 사람 중 한명입니다.

미셸 오바마의 연설
미셸 오바마는 바이든 대통령후보자는 시민들의 아픔을 이해하며 지금까지 지켜온 자신의 신념을 계속 가지고 갈 훌륭한 후보자라는 말을 시작했습니다. 미셸 오바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옳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무언가를 말해야 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 그것이 가장 진정한 공감의 형

태이다. 감정뿐만 아니라 행동을 취해야 한다. 그런 행동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는 지금 우리 시대의 잘못된 대통령이다. △트럼프는 분명히 미친것이지요. 그는 성공할 수 없다. △우리는 깊게 분열된 나라에 살고 있다. 저는 민주당 대회에서 말하는 흑인 여성이다. △저는 조를 안다. 그는 믿음의 인도를 받은 매우 품위 있는 사람이다. 그는 훌륭한 부통령이었다. △Joe는 완벽하지 않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그것을 가장 먼저 말할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후보자는 없다. 그리고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그의 능력-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갈망하는 그런 종류의 겸손과 성숙함을 발견할 수 있

다. △우리는 하나님 아래 하나의 국가이며, 살아남으려면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하며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 (참고로, 바로 이 대목은 같은 민주당원들 사이에서 이들과 함께 하기를 꺼려하는, 그리고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를 다르게 원하는 같은 민주당원들에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또한, 미셸 오바마가 위에서 언급한 "우리의 차이를 극복하고 함께 일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는 민주당 대통령후보자로 나왔고 아직도 후퇴하지 않은 흑인 Kenya West의 이야기라고 예상하며 이전 미셸 오바마가 했던 "지금은 대통령 후보자 시위에서 승리할 기회가 없는 후보들을 염두에 둘 시간도 없고, 그런 게임을 할 때가 아니다"라고 언급한 주류 언론들의 인터뷰들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음 회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저는 현재 가든 그로브에서 목회하고 있는 젊은 목사입니다. 이 민목회가 어려운 것을 알면서도 목회자가 되고 목회 전선에 뛰어들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까지 겹쳐 더 어렵습니다. 장차 미래목회에 많은 변화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향후 목회의 변화에 대해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가든 그로브 정 목사

A: 현재 우한페렴이 팬데믹으로 장기화 되어 온 교회가 섰다 되어 벌써 5개월째 정상적인 교회당 모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빌 게이츠는 이 우한페렴 팬데믹 현상이 내년 말까지 가야 끝날 것이라고 말했지만 저는 트럼프 정부가 박차를 가하는 백신개발이 성공하면서 내년 초에는 미국도 모든 것이 안정을 찾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목회자들도 요즘은 모이면 팬데믹 상태가 장기화 되면서 미래목회의 변화와 함께 이민교회도 많은 방향수정이 불가피함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럭비공이 어디로 쫓겨 모르는 것처럼 목회자들도 불안한 현실에 당황해 하고 미래에 대한 전망이 불확실하나 목회자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앞의 흥해도 갈라지고 하나님이 감추신 새 길을 열어주실 것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성장 컨설팅 전문가인 톰 레이너(Thom S. Rainer)는 웹사이트에 "향후 1년 교회에 일어나는 변화 5가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실었습니다. 첫째, 팬데믹 이전 교회 출석자 가운데 최소 20%가 교회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둘째, 앞으로 12개월 동안에 더 많은 목회자가 목회직을 내려놓을 것이다. 우한페렴 재앙으로 목회자가 더 어려워져 목회를 포기하는 자가 더 많아 질 것이다. 셋째, 개종성장(conver-

미래목회 양상 중 사이버교회의 탄생 예고

tion growth)을 새롭게 강조할 것이다. 지난 30년간은 대부분의 교회 성장은 수평성장(Transfer growth)이었다. 교회지도자들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교회로 인도하는 개종성장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 넷째, 더 많은 교회가 새로 생길 것이나 그 중 대부분은 소규모 교회가 될 것이다. 이 새로운 교회는 약 25-30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교회의 시작이 될 것이다. 다섯째, 교회입양(church adoption)과 교회위탁(church fostering)이라는 2가지 운동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다. 목회자가 없는 교회가 더 증가할 것이고 이중 일부는 교회에 다시 입양될 것이다.

위의 톰 레이너의 지적을 다 받아들이기는 힘들지만 그의 미래 교회의 변화예상은 날카로운 지적이라 봅니다. 앞으로 이민교회의 목회는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변화를 예상하는 가운데 무엇보다도 전통적 교회개념을 초월한 사이버교회의 탄생이 한 예입니다. 미국 예일대신학대학원 예배학교인 테라사 베르그(Teresa Berger) 교수도 "사이버(온라인)공간이 예배를 위해 배려없이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나 사이버 공간이 기도와 예배를 위한 유례없이 부적절함(inappropriate) 장소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말하며 예배의 레퍼토리가 과거보다 방대하게 확장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는 팬데믹 시대에 지난 5개월간 Zoom을 통해 성도들과 대면하여 예배와 성경공부를 해왔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Zoom을 사용하여 인터넷 공간에서 서로 대면하여 교제하고 예배와 성경공부를 하는 "Zoom교회"도 많이 생겨날 것으로 봅니다. 장차 이 사이버 교회와 예배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비평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박은성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www.youngnak.com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30 토요한국학교: 오전 9:00 Tel: (562)691-0691, Fax: (562)691-0698, www.nachiban.org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남가주든든교회 담임목사: 김현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예배: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영어전 (월-금):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금) Tel: (213)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청년 예배: 오후 1:20 영어전 (월-금):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9: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구봉주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어강좌: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9:00(토) 영어예배: 오전 9:30, 11:30 Tel: (714)521-0991, www.thanksgivingchurch.org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323)9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lafcusa@yahoo.com / www.lafgc.com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금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금 요 예배: 저녁 7:30 Tel: (310)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디아스포라선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주일예배: 오후 2:30 Tel: (213)559-7728 (전화 센터 겸용), Tel: (213)210-6890 2333 Beverly Blvd., L.A., CA 90057	머무는교회 담임목사: 김문수 주일예배: 오전 10: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213)909-2820 www.staychurch.org 690 Wilshire Pl., Los Angeles, CA 90005 (윌셔빌 캠퍼스) Office: 106 S Hobart Bl., Los Angeles, CA 90004 (수요일캠퍼스)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찬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 (213)737-3009, Cell: (213)215-8523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장년)4부: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일기도: 오후 7:30 Tel: (213)381-2202, www.mjca.org 170 Bin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금) 주일학교: 오전 6:00(토) Tel: (310)749-4756 25401 S. Western Ave. Lomita CA.90717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이광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15 주일예배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임어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전 9:15, 11:30 Tel: (949)854-4010 / behel@bkc.org / www.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 (213)-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열매교회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Tel: (323)737-3009, Cell: (213)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엘피스사역원 원장: 박운송 목사 (LA)복음화전략교회 협동목사 성서사역: (월-금) 오전 9:45(10월) 사역사역: 1. 영성사역 2. 목회사역 3. 가정사역 4. 사별사역 5. 네트워킹 사역 http://www.elpisfamily.org / Tel: (213) 700-9928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9:00(토) 은혜사역가이드: 365일 24시간 오픈 Tel: (714)446-6200, www.gracemc.org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새문교회 담임목사: 박성규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영양)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성령대령회: 오후 7:20(금) Tel: (310)325-4020, www.junim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 (213)749-4500, www.gcj.org 1801 S. Grand Ave., #A, L.A., CA 90015		
좋은마을교회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 Tel: (714)646-9259 www.sccalsamsungchurch.org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68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310)530-4040(CH), www.cornertony.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김우준 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7:00(분당)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전년예배: 오후 2:00(분당) 수요일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월-토) 오전 5:30(분당) Tel: 310-370-5500, www.torrancecgc.org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핼(PIM)산교회, 교회 담임목사: 이훈우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한어예배: 오후 1:00 교육부: 오전 11:00 Tel: 213 924-3340, pimission1004@gmail.com 2533 Honolulu Ave # 4 Montrose, CA 91020	하늘소망교회 담임목사: 김덕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수요일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영성'이 있어주세요 오전 9:30 오후 7:00 Tel: (213)500-2948, dock.kim@biola.edu 3416 W. 1st St., L.A., CA 90004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6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태국 북서부의 부족들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주로 나즈막한 산 구릉지를 따라 거주한다. 그들은 몬 크메르어(ꠘ)족과 타이어(ꠗ)족에서 유래한 다양한 언어를 구사한다. 북서부 부족들은 대개 자신들의 부족언어와 북부 타이어 2개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주로 북부타이어 문자를 사용한다.



수가 태국에 정착했다. 태국 북부지역은 원래 6세기에 건국된 초기 문왕국의 영토였다. 13세기에 문왕국은 타이족에 의해 멸망됐고 이로 인해 19세기 후반까지 북서부 지역들은 방콕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가질 수 있었다.

오랜 세월을 걸쳐 태국은 잦은 정부교체와 군사폭동을 겪었고 전쟁과 재이주로 인해 태국 북서부 부족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했다.

삶의 모습

대부분 부족들은 태국 북부의 산악지대에 살면서 화전농법을 사용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지속적인 화전법의 이용

으로 이 지역에 자연 서식하던 열대 상록림 중 상당 부분이 파괴됐다. 결국 부족민들은 계속 다른 마을로 옮겨 다녀야 했다. 태국정부는 농민들에게 평지로 이주해 관개 논에서 쌀을 재배하도록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화전농업을 하고 있다.

부족들에게 쌀은 가장 중요한 작물이며 수수와 양귀비도 경작된다. 말벼(Dry rice)를 경작할 때는 쟁기나 황소를 쓰기 보다는 "땅파는 막대기(digging stick)"를 이용한다. 자체 소비를 위해서나 판매를 위해 논벼(wet rice)를 경작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물소가 끄는 원시적인 목재농기구를 이용한다.

오랫동안 아편은 부족들에게 현금을 얻기 위한 주요 원천이었으나 아편거래 액제가 심해지면서 정부는 돼지사육과 후추재배 등을 권장하고 있다.

부족마을들은 논으로 둘러

싸인 다소 움푹된 평지나 도로 변의 고지대에 위치해있다.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옥들이 있다. 보다 부유한 사람들은 종종 튼튼한 마호가니 가옥에서 사는 경우도 있으며, 이 집은 고상식 가옥에 판자마루와 타이로 된 지붕이 있다.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지붕과 흙마루로 된 대나무 가옥에서 산다.

마을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 조직은 불교사찰이다. 이곳은 마을사람들 간의 단합을 상징하며 주민들에게 다양한 행사를 제공한다.

이 지역 사람들은 매우 정중하며 예의 바르고 호의적이다. 가족은 사회형성의 기본단위가 된다.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예의바른 사회행동방식을 배운다. 즉 상사(上使)나 나이든 어른들에게 존경심을 가지면서도 또 동시에 독립심과 자립심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북서부 부족들의 사회는 아주 조직적이다. 사회계층은 일

반적으로 연령, 직업과 부를 기반으로 형성된다. 예컨대 시골의 농부들은 장인들이나 상인, 도시공무원들보다 낮은 계층으로 취급되며 승려들은 독립적인 계급으로 인식된다.

특히 루(Lu)족은 솜씨 있는 은세공업자들이다. 남자들은 유명한 루족의 검(Lu sword)을 만들며, 여자들은 방직과 자수 등에 뛰어나다. 크무족(Khmu)은 능력 있는 마술사들로 평판이 높다.

신앙

불교는 기원전 329년에 태국에 소개됐다. 야오족을 제외한 많은 부족들이 불교 요소를 전통적인 정령신앙(애니미즘)과 혼합했다. 따라서 사람들은 미신적인 신령과 물건들에게서 도움을 구한다. 그들은 "피(phi)"라고 하는 영혼들에게 제물과 제사를 드려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믿고 있다.

이 지역의 부족들 중에서 타

이족이나 라오족들은 영적으로 크무족들을 가장 존경하는데, 이는 크무족이 다른 부족들보다 대지(大地)와 그 땅의 영들에 더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각 부족마다 적어도 하나의 선교단체가 그들을 섬기고 있지만 니옹족(Nyong)이나 쿤족(Hkun) 가운데 사역하고 있는 선교단체는 없다. 이 모든 부족들 가운데 일할 만한 사역자들이 필요하다.

현재 이 부족들 가운데 자신들의 언어로 된 성경번역본을 가지고 있는 부족은 없다. 하지만 니옹족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일부는 가지고 있다. 그들의 언어로 된 추가적인 자료들이 절실히 필요하다. 부족 여성과 아이들 중 많은 수가 매춘을 해 생계를 유지한다. 이 소중한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기도가 필요하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교회 안에 분열 들어오지 못하게”

미국 하나님의성회 더그 클레이 총회장이 오는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정치의 양극단화를 우려하며 영적 일치 유지에 힘쓰고, 성경의 원칙 위에 굳건히 서자고 호소했다.



클레이 총회장은 지난 20일 미 하나님의성회 홈페이지를 통해 1만3000여 회원 교회 앞으로 보낸 ‘목회서신’을 공유했다. 그는 “양극단화와 정치는 필연적으로 함께 간다”면서 “2020년 양극단화는 심화됐고 심지어 일상의 결정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갈 5:15)는 말씀을 인용,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 내부에 분열이 들어오지 않도록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면서 “분열은 자멸로 이어진다”고 경고했다.

클레이 총회장은 “우리의 사명은 복음 전도, 예배, 제자도, 구제”라면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정치가 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성경의 원칙’과 관련해 정의와 자유에 주목했다. 그는 성경적 정의에 대해 “약자들과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보호하는 일은 하나님의 사역”이라며 “교회 입장에서 이 사역의 주된 도구는 복음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종교의 자유에 관해서는 “단지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것 그 이상의 자유로 국민이 정부에 순응하기 위해 신념을 거스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라며 “종교의 자유는 우리의 신념에 따라 평화롭게, 공적으로 말하고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간통한 목사, 목회 영구 중단해야”

목회자의 성적 윤리에 대한 미국 교계의 엄격해진 인식을 보여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미국 기독교 여론조사 기관 라이프웨이리서치는 목회자 1000명을 대상으로 ‘간통한 목사의 목회 중단 필요인가’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최근 발표했다.

조사에서 목회자 4명 중 1명 이상(27%)은 간통한 목사에게 대해 ‘목회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최소 1년 중단’(16%) ‘최소 2년 중단’(10%) ‘최소 5년 중단’(7%)이 뒤를 이었다. ‘6개월에서 1년 미만’은 6%, ‘3~6개월’ ‘3개월 미만’은 각각 3%, ‘중단할 필요 없다’는 2%에 그쳤다.

스콧 맥코넬 라이프웨이리서치 대표는 “십계명의 제7계명은 물론 디모데전서가 기록하는 장로들의 자격에 이르기까지 간통은 크리스천에게, 특히 교회 지도자에게 용납되지 않는 일”이라며 “이 같은 인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라이프웨이리서치가 2016년 같은 조사를 했을 때와 비교하면 목회자들이 더 엄격한 잣대로 성적 윤리를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목회 영구 중단’ ‘최소 5년 중단’의 응답 비율은 각각 3% 포인트, 2%P 늘어 비교적 장기간 사역을 중단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됐다. ‘최

소 10년 중단’ 응답률은 1%로 동일했다. 반면 ‘3~6개월’ ‘3개월 미만’ 등 짧은 기간 동안 목회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응답과 ‘중단할 필요 없다’는 응답은 각각 1~3%P 줄어 대조를 보였다.

조사에서는 목회자의 학력이 높을수록(학사 34%, 석사 27%, 박사 22%), 교회 규모가 클수록 ‘목회를 영구 중단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낮았다.

맥코넬 대표는 “설문조사를 통해 나타난 목회자들의 인식은 교회 전체의 인식을 보여주는 척도”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8월 30일부터 9월 24일까지 전화조사를 통해 진행했으며 표본오차 95%에 신뢰수준은 ±3.3%이다.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

3차 로잔대회 디아스포라 선교대회 10주년을 기념한 ‘로잔 디아스포라 온라인 회의 2020’(Lausanne Diaspora Virtual Summit 2020)이 오는 8월 26일부터 27일 양일간 저녁 7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이 온라인 회의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 이주민 사역자들 1,000여명이 참석해 생중계로 진행됐다.

첫날 일정은 지난 10년 동안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을 기념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둘째 날은 새로운 이슈와 디아스포라 선교 사역의 미래 동향을 다뤘다. 이틀간 지역 및 언어 기반으로 브레이크 아웃 소그룹, 전체 브레이크아웃 그룹, 테마별 브레이크아웃 소그룹, 글로벌 브레이크아웃 전체 그룹 등이 진행됐다.

대부분 세션이 영어로 이뤄지며 아랍어, 프랑스어, 한국어, 만다린어, 포르투갈어, 스페인어 등 언어별 소그룹 브레이크아웃 모임과 이를 위한 통역도 준비됐다.

주최 측은 “시공과 언어를 넘는 이틀간의 지구촌 생방송 진행은 매일 세 시간씩 온라인 모임으로 여러 시청각 자료, 전문가 토의 등 지역과 세계를 잇는 진행으로 이어지며, 급변하는 세계 상황에 디아스포라 이주민 선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우리가 직접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복음의 움직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다. 우리는 계속 지역교회를 도전하여 하나님의 디아스포라(이주민) 계획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전 솔티, 한국의 종교탄압 서명운동 전개

한국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종교탄압을 받고 있다며 이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이 미국에서 전개되고 있다.



워싱턴DC에서 발행되는 코리아포워드는 지난 23일 “북한 인권운동가 수전 솔티 디펜스포럼 재단 회장이 ‘한국 종교인들을 대상으로 문재인 정부가 놀라운 행동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팬

데믹을 이용해 종교 박해를 하는 문 정부에 보내는 서한에 서명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서명 운동은 종교 자유를 위한 단체 ‘주빌리 캠페인(Jubilee Campaign)’과 북한자유연합 창설 구성원 중 한 명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자유연합은 미국 내 인권단체들의 연합 조직으로 매년 4월 미국 국회의사당과 백악관 등 워싱턴DC와 서울에서 탈북민 구출 활동 등을 하고 있다.

솔티 회장은 “코로나19 확산의 이유가 될 수 있는 (다른 집회의) 많은 참석자에게는 사랑제일교회와 같은 비난이 가해지지 않고 있다”며 “부산 해변, 스포츠 경기장, 대중교통 등 비종교 활동 장소에서도 인파가 몰렸음에도 이에 따른 공개적 비판을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솔티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사랑제일교회의 정치적 행동을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한국 교회들이 정부 당국으로부터 예배를 방해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한국교회는 지난달 초부터 성경 공부, 성가대 연습, 기타 활동을 금지했으며 교회를 방문한 사람들의 전자 기록을 보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런 규정은 대규모 모임에 대한 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염병에 대한 책임을 교회로 돌리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베노믹스도 ‘초라한 퇴장’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8일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아베노믹스’로 불린 경제 정책도 초라한 퇴장을 하게 됐다. 아베노믹스는 집권 초기에는 일시적으로 효과를 보이는 듯 했지만, 이내 악화하면서 실패한 경제 정책이라는 평가를 받게 됐다.



28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일본 내에서는 수십년간 침체한 경제를 부양하려던 아베 총리의 시도가 실패로 막을 내렸다는 게 대체적인 진단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잠궤의 여파로 일본이 경기침체에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의 관뚜껑에 못이 박혔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는 2012년 집권 후 △대규모 양적 완화 △재정지출 확대 △구조개혁으로 구성된 ‘세 가지 화살’ 경제정책을 가동했다. 지속적인 저성장과 저물가로 위축을 되풀이하는 경기를 피우기 위한 이 같은 조치는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듯했다.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의 대규모 통화완화 정책으로 기업 심리가 살아나고 수출을 저해하던 엔화 가치도 떨어졌다. 수출업체들의 이익이 개선되고 그에 따라 ‘낙수효과’로 임금이 늘고 고용도 새로 창출되는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구조개혁에 따라 해외 자금이 일본으로 유입돼 외국인들이 보유한 일본 주식의 비중은 2012년 28%선에서 2014년 31%선으로 뛰어올라 최고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아베노믹스가 집착한 ‘세 가지 화살’이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를 극복하는 데까지 효과적이지는 않았다. 일본 내 전문가들은 아베노믹스가 낮은 생산성, 인구의 급격한 고령화, 경직된 노동시장에 결국 발목이 잡혔다고 지적한다.

저성장과 저임금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기업과 가계가 돈을 쓰지 않는 고착된 태도에도 변화가 오지 않았다. 기업들이 번 돈을 자본지출(생산에 투자)에 쓰지 않아 사업 기회와 혁신이 사라져 경제성장 잠재력이 위축됐다. 헤지펀드인 아시안 센추리 퀘스트의 브라이언 켈

리는 “아베노믹스는 외부 수요에 의존하는 상황을 뛰어넘어 경제성장률을 높일 일본 내 여건을 마련하는 데 있어 특히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연간 잠재성장률은 1980년대에 4%에 달했으나 아베노믹스가 시작될 무렵 1% 정도였고 작년에는 거의 0%로 떨어졌다. 이 같은 부진은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아베 정권의 부실 대응과 함께 더 심해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일본 노린추킨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미나미 다케시는 “다음 총리가 누가 되든지 관계없이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고 전염을 통제하는 게 초점”이라고 말했다. 미나미는 “아베노믹스가 해악을 끼쳤다는 얘기도 있다”며 “아베노믹스를 어떻게 수정할지가 주제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세계 코로나 사망자 85만명 육박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자가 2500만명을 돌파했다. 지난 9일 2000만명을 넘어선 후 3주 만에 500만 명이 추가된 것이다.



30일 국제통계사이트 월드미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세계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2517만563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는 84만6797명으로 곧 85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루 확진자 수는 지난 27일 이후 25만~27만명을 유지하고 있고, 매일 5000~6000명이 사망하고 있다.

현재 감염자가 가장 많이 늘어나는 곳은 인도다. 인도 보건·가족복지부에 따르면 인도는 29일(현지시간) 하루 동안 7만8761명이 감염돼 일일 확진자 수로 세계 최다 기록을 세웠다. 이제까지 세계 최다 일일 확진 기록은 지난 7월 16일 미국이 세운 7만7299명이었었다. 인도는 지난 26일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 7만5000명을 넘어선 후 나흘 연속 7만명 이상의 감염자를 보고하고 있다.

전 세계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가장 많은 미국은 누적 확진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전날 신규 감염자는 4만2843명이며 총 사망자는 18만6855명에 달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잠시 안정됐던 유럽도 지난 28일 프랑스에서 7379명이 새로 감염되는 등 2차 확산 위기에 처했다. 이날 이탈리아(1444명) 터키(1549명) 영국(1108명) 등 유럽 주요국에서 10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집계돼 보건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코로나백신 승인 ‘러시’

전 세계의 대형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 백신을 개발 중인 가운데 미국을 비롯한 국가들이 아직 임상시험이 끝나지 않은 백신을 경제적으로 승인하고 있다.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해 백신은 필수지만, 전문가들은 효과와 안전성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백신을 접종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입을 모았다.



영국 일간 가디언 등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대선 전에 백신 개발 성과를 공개함으로써 공공보건을 위협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학자들은 또 “그런 백신 때문에 보건당국이 ‘백신’의 효과가 있다”고 틀린 가정을 하거나, 개인이 “나는 면역력이 있다”고 잘못된 신념에 빠지게 되면 코로나19 통제 정책이 단축되거나 시민들이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게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복음과 상황

건강한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아는 것과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동시에 강조한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성도들이 본문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설명하는 동시에 삶 속에서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가르치는 의무를 받았다.

교회사 흐름의 줄거리는 복음의 확장이다. 복음과 상관관계를 심각하게 다루는 것은 각 시대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중대한 임무였다. 그런데 3세기 중간까지 초대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현재처럼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복음전파를 책임진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된다.

그러나 이단이 출현하고 핍박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초대교회 변증자들이 등장하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저스틴 마티어(Justin Martyr, 100-165)와 이레니우스(Irenaeus, 130-202), 터툴리안(Tertullian, 144-240) 등은 성경은 물론 당시 유행하던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이었다.

초대교회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지속적으로 복음과 상황 사이의 긴장관계를 경험해왔다. 하나는 이미 복음을 전달 받은 성도들이 상황의 변화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였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불변하

는 복음을 변하는 상황에 잘 적응시키는 것이었다. 그러나 교회역사에 남겨진 발자취를 살펴보면 아쉬운 점을 발견하게 된다. 전통적 복음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시키지 못하고 실패한 경우가 있었으며, 이와 반대로 전통적 복음이 아예 새로운 상황에 흡수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이다.

문제 는 현대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커다란 도전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복음과 상황, 과연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민중 신학 1970년에 서남동과 안병무 등의 소수 진보적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민중신학(Minjung Theology)이 전개되었다. 일반 성도들에게 매우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근대사를 지나며 큰 변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매우 한국적 신학이었다.

이 이해한 민중은 매우 특이하다. 그 당시 경제개발정책이 거듭 성공을 거둔 결과 이전에 비해 잘 사는 사회로 변해갔다. 그러나 독재적 지배층에 윙포로 인해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계층이 있었다.

민중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신학의 틀에 한국 상황을 비추어 반성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려 하였다. 그들은 민중을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실체로 보았으며, 심지어 '민중이 예수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민중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신학의 틀에 한국 상황을 비추어 반성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려 하였다. 그들은 민중을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실체로 보았으며, 심지어 '민중이 예수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그들에게 복음이란 억눌려 있는 자들에게 정치적 구원을 통해 해방시키는 행위였다.

혁을 시도하는 기독교사회운동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다. 압제 당하고 억눌린 자의 입장에서 공평한 사회를 외치던 진보적 성향을 지닌 자들이 새로운 기독교인으로 등장하였다.

과거 보수적 신학자들은 민중의 삶 자체를 성경의 내용이자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민중 신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비판적이었다. 영적 구원 대신 정치적 구원을 신학의 주제로 삼을 수 없다며 거부한 것이다.

제시된 원리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상황화를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화가 출발된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끼친 영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으며 경계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용어는 1961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가입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1957-58년 가나회의에서 결성한 '신학교육기금(TEF: Theological Education Fund)'에 의

해 1971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TEF가 제3국에 소재한 신학교 교육기관을 위해 기금과 교과서를 공급하고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역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서구의 신학적 전통을 따라 개인의 구원과 윤리에 치중하는 대신, 교회가 억압자의 지배를 받으며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복음을

화할 뿐 아니라 마치 복음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인 듯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중신학이 지닌 진정한 중요한 위험성은 따로 있었다.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에서 생겨난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의 연속이란 것이었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란 무엇인가? 상황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둘러싸여 동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은 상황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상황화'는 복음이란 반드시 새로운 상황을 중시하고 적절하게 관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상황화는 토착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복음전파 초기에 필요한 토착화의 원리인 자치, 자립, 그리고 자전을 근간으로 탄생된 것이다.

제시된 원리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상황화를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화가 출발된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끼친 영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으며 경계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용어는 1961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가입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1957-58년 가나회의에서 결성한 '신학교육기금(TEF: Theological Education Fund)'에 의

해 1971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TEF가 제3국에 소재한 신학교 교육기관을 위해 기금과 교과서를 공급하고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역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서구의 신학적 전통을 따라 개인의 구원과 윤리에 치중하는 대신, 교회가 억압자의 지배를 받으며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복음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TEF가 추구한 상황화는 제3세계의 전통적 문화적 관점에 대한 복음의 반응을 포함시켰으며, 신학 교육을 통해 그들의 문화, 사회, 정치, 그리고 경제 구조를 포함한 모든 영역을 바꾸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그들은 상황화의 목표를 예수님의 도성인신에서 찾았다. 그가 이 세상에 내려온 궁극적인 목적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을 올바른 위치로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표준적 진리로 삼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은 상황화의 목표를 예수님의 도성인신에서 찾았다. 그가 이 세상에 내려온 궁극적인 목적을 소외되고 가난하고 버려진 자들을 올바른 위치로 회복시키려는 것으로 이해하고, 이를 표준적 진리로 삼아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그들이 이해한 교회에게 주어진 중요한 임무는 현실에 초점을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복음과의 접촉점을 찾으려하지 않는 대신, 현실에 도전하여 변화시킬 수 있

을만한 '새로운 복음'을 찾는데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상황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서구의 전통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서양인들은 제3세계인들과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면서, 생명을 잃은 정적인 지식 체계에 갇힌 비 복음적이며 반 기독교적이라며 노골적으로 비난하기도 하였다.

상황화는 WCC 에큐메니칼 운동의 주된 관심사로 자리 잡으면서 그 체계가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20세기에 등장한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를 통해 제3국의 상황을 절대화시키는 신학의 위치를 얻게 되었다.

반성 기독교 신앙은 지식과 행동의 조화를 요구한다.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개인의 구원과 성화를 뛰어넘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매우 많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 넘쳐났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현재도 다를 바가 없다. 우리는 이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지 못하였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

경각심 복음은 상황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개혁의 땀방울- 무엇을 기대할까? (19)

교회사가 가르친다!(6)-복음의 상황화

조진모 목사

(Ph.D.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민중 신학

1970년에 서남동과 안병무 등의 소수 진보적 신학자들을 중심으로 민중신학(Minjung Theology)이 전개되었다. 일반 성도들에게 매우 생소할 수도 있지만 근대사를 지나며 큰 변화를 경험한 한국사회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 생겨난 매우 한국적 신학이었다.

이 이해한 민중은 매우 특이하다. 그 당시 경제개발정책이 거듭 성공을 거둔 결과 이전에 비해 잘 사는 사회로 변해갔다. 그러나 독재적 지배층에 윙포로 인해 부의 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된 상태에서 희생을 감수해야했던 계층이 있었다.

민중 신학자들은 자신들이 지니고 있던 신학의 틀에 한국 상황을 비추어 반성하면서 복음의 의미를 재발견하려 하였다. 그들은 민중을 고난 받는 그리스도의 실체로 보았으며, 심지어 '민중이 예수다!'라고 외치기도 했다.

화할 뿐 아니라 마치 복음이 특정인들의 전유물인 듯 오해를 불러왔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민중신학이 지닌 진정한 중요한 위험성은 따로 있었다. 바로 라틴아메리카의 정치적 상황에서 생겨난 해방신학(Liberation Theology)의 연속이란 것이었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란 무엇인가? 상황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둘러싸여 동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은 상황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상황화(contextualization)란 무엇인가? 상황이란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주위에 둘러싸여 동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인간은 상황적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므로 '상황화'는 복음이란 반드시 새로운 상황을 중시하고 적절하게 관계해야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상황화는 토착화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복음전파 초기에 필요한 토착화의 원리인 자치, 자립, 그리고 자전을 근간으로 탄생된 것이다.

제시된 원리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상황화를 매우 필요한 과정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상황화가 출발된 역사적인 배경과 내용, 그리고 향후 끼친 영향 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발상이었으며 경계의 대상이란 사실을 알게 된다.

이 용어는 1961년에 '세계교회협의회(WCC: World Council of Churches)'에 가입한 '국제선교협의회(IMC: International Missionary Council)'가 1957-58년 가나회의에서 결성한 '신학교육기금(TEF: Theological Education Fund)'에 의

해 1971년에 처음 등장하였다. TEF가 제3국에 소재한 신학교 교육기관을 위해 기금과 교과서를 공급하고 도서관을 지어주는 사역을 실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제3국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서구의 신학적 전통을 따라 개인의 구원과 윤리에 치중하는 대신, 교회가 억압자의 지배를 받으며 억눌려 있는 자들을 해방하는 복음을

을만한 '새로운 복음'을 찾는데 우선 순위를 둔 것이다. 상황화를 주장하는 자들은 서구의 전통신학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대상이 매우 많다. 소외되고, 가난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자들이 넘쳐났다. 과거에 그러했듯이 현재도 다를 바가 없다.

경각심 복음은 상황을 중요시 한다. 그러나 반드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복음의 본질이 아닌 상황을 출발점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이다. (13면으로 계속)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Galbraith, Montgomery, Bixby, Benell, Boston, Salt, Seattle, Anidok, Alkan, Anglican, Yonker, El Paso, Young, Killen, Westminster, Jesus, Tacoma, Philadelphia, and MJC.

리더십 코멘터리 (118)



손동원 목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위기를 뛰어넘는 원칙, 리더를 생각하다

극한상황에서의 리더십

당신이 지금 남극의 얼음 위에 있다고 상상해보자. 평균기온은 섭씨 영하 55도이고, 문명사회에서 떨어져 나온 지 2년이 다 되어간다. 식량은 떨어져 펭귄과 물개를 사냥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고, 텐트 바닥에 깔 것이 부족해 매일 얼굴이 녹은 물속에서 뒹굴며 잠을 청한다. 당신의 지휘를 받는 대원들은 모두 27명, 구조대가 올 가능성은 없다. 당신은 어떤 리더십으로 그들 모두를 살릴 수 있을 것인가?

영국의 남극 탐험가 어니스트 새클턴은 실제로 이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 새클턴은 남극점 정복 대신 남극 대륙 횡단을 계획하고 27명의 대원과 함께 범선 인듀어런스호를 타고 세 번째 남극

에도 새클턴의 그러한 마음을 잊지 못할 것이다. 수천 파운드의 돈으로도 결코 그 한 개의 비스킷을 살 수 없을 것이다."

새클턴의 비스킷 하나는 바로 생명 그 자체이기도 한데 그것을 나누는 것이다. 추위에 떠는 대원들에게 자기 몫의 식량을 나누어준 것이었다. 어느 날 밤 새클턴은 자기가 믿어온 대원 하나가 잠들기 전에 주위를 둘러보다가 동료대원의 식량주머니에 손을 뻗는 것을 보았다. 새클턴은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그런데 그 대원은 동료대원의 식량주머니를 열어 자기의 비스킷을 그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리더가 자기를 희생하자 대원들도 서로를 희생했던 것이다.

새클턴 팀은 추위와 굶주림으로 살

이면 그 팀은 흩어질 수밖에 없다. 위기에 대응하는 10가지 리더십의 원리들을 살펴보자.

- ①궁극적인 목표를 잊지 마라. 위기 상황일수록 방향과 목표가 분명해야 한다. 목표가 분명하면 반드시 길은 열린다.
- ②리더가 솔선수범하라. 위기상황에서 리더가 보여주는 솔선수범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끈의 역할을 한다.
- ③자기 확신을 가져라. 위기상황일수록 가장 먼저 차단해야 할 것은 바로 비판 바이러스이다. 그리고 그 비판 바이러스를 차단하는 최선의 무기는 낙관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것이다.
- ④책임까지 맡아라. 컵을 깨뜨려 물을 엔질러 놓은 것을 책임질 것이 아니라 깨진 컵에 다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한다.
- ⑤팀 메시지를 강화하라. 한 마음, 한 뜻으로 위기를 돌파해 낼 짧지만 강력한 한마디의 팀 메시지를 만들어 전파해야 한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절망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산다' 같은 조건의 상황과 성격에 맞는 팀 메시지를 강화해야 한다.
- ⑥서로를 존중하라. 어려운 때일수록 서로를 존중하는 분위기가 살아야 너도 살고, 나도 살며, 조직도 산다.
- ⑦불필요한 힘겨루기를 삼가라. 위기상황 아래서 힘겨루기를 하는 것은 결국 다 같이 죽는 말이다.
- ⑧함께 웃을 일을 찾아라. 함께 웃을 수 있는 일을 찾아내는 것은 힘든 위기상황을 이겨내는 데 정말 좋은 자세이다.
- ⑨적극적으로 시도하라. 위기상황 속에서 도전적으로 시도할 것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위기 탈출과

궁극적 목표 잊지 말고 솔선수범, 확신 갖고 책임 맡아야 팀 메시지 강화, 상호존중하며 적극적으로 하고 포기 말라

탐험 장정을 떠나게 되었다. 그러나 새클턴 팀은 남극점에서 155km 떨어진 장소에서 식량부족으로 남극점을 향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되었다. 이 탐험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탐험가로 평가한다. 그리고 이 탐험을 위대한 실패, 위대한 항해라고 부른다. 사람들이 새클턴을 위대한 리더로 평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희생정신과 도전정신의 리더십

그 이유는 새클턴을 포함한 27명의 대원들이 634일간 영하55도를 오르내리는 남극의 빙벽에 간하는 극한 상황 속에서 모두 살아 돌아왔기 때문이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 새클턴의 대원 중 한 사람은 그 때 일을 생생하게 글로 남겼다. "새클턴은 은밀히 자신의 아침 식사용 비스킷을 내게 내밀며 먹으라고 강요했다. 그리고 내가 비스킷을 받으면 그는 저녁에도 내게 비스킷을 줄 것이다. 나는 도대체 이 세상 어느 누가 이처럼 철저히 관용과 동정을 보여줄 수 있을까 생각해본다. 나는 죽

희망이 없었다. 새클턴은 모험을 하기로 작정했다. 남경의 포경기지, 곧 고래를 잡는 선원들이 있는 곳으로 몇 명의 대원과 함께 가기로 작정했다. 6미터가 조금 넘는 소형 선박을 이끌고 풍랑이 거친 바다를 건너 해발 3000m에 달하는 얼음산을 맨손으로 넘었다. 16일간 1290km에 달하는 죽음의 항해를 한 끝에 고래잡이 선원들이 있는 곳에 도착하게 되었다. 그리고 죽음의 길을 뚫고 예인선을 끌고 와서 남은 대원을 모두 구조하였다. 탐험을 끝낸 후 새클턴은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 일에 대해 말했다.

"얼음산을 넘을 때, 우리 일행은 분명 세 명인데 난 네 명처럼 느껴졌다. 이상하게 생각되어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그들도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웠던 여행 내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음을 나는 믿는다."

리더십 코멘터리

한 집단이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리더의 자기희생과 도전정신이다. 위기를 만났을 때 리더가 무능력하거나 이기적

극복이 가능해진다. ⑩절대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기회는 온다. 위기 탈출과 극복은 결국 '포기하고 싶은 마음과 싸우는 일'이다.

리더십이 절실해지는 시대이다.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리더의 역할은 중요해진다. 경제 불황과 정치 불안으로 사회 각층에서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리더를 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리더가 없고 리더십 부재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한다.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한다는 말이 뉴스에 등장한다.

교회도 코로나 위기를 돌파해나갈 비전 있는 리더를 갈망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교회 주일 공동체예배가 영상으로 대체되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보다 "가까이하지 말라"는 바이러스의 메시지가 더 강력해진 상황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교회는 무엇을 말해야 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어둠속에서 기이한 빛으로 부름 받은 리더들이여, 머리를 들고 찬송을 부르며 이웃을 사랑하고 어떤 환난과 역경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sondongwon@gmail.com

성품 칼럼



이영숙 박사
(좋은나무성품학교 대표)

분열의 시대, 하나됨을 지키는 비결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요17:21).

이 기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공생애 기간 중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기도해주시고 내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셨습니다.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계신 것처럼 말입니다.

현대는 '하나' 되어 사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외딴 섬처럼 혼자 있는 것이 안전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서적으로도 혼자서 더 편하고 쉬운 길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갑니다.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것을 불가능한 기적처럼 생각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마음을 나누며 하나 되기를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고 공동체도 하나 되지 못한 채 외로움과 고독 속에 분열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 직장, 교회가 서로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세상을 세우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될 때 가능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신 그분의 책임감을 배울 때 하나됨이 지켜집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책임감이 바로 하나 되는 세상을 유지하고 지키게 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를 여전히 놓지 않으시고 창조주로서의 책임을 신실하게 다하고 계시는 그분이 계시기에 시편 기자처럼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시3:5)라는 안전을 노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가 약속과 언약을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되는 좋은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감의 성품이 필요합니다.

책임감이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하는 태도'(좋은나무성품학교 정의)입니다. 책임감은 내가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각각의 관계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알고 끝까지 최선을 다할 때 '하나' 되는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올바른 분별력을 갖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선택하는 책임감의 성품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서는 창조주의 성품을 따라해 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 옳고 그름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자녀는 알 수 없습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는 일,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일이 자녀들에게 책임감을 가르쳐주는 좋은 방법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역할을 유심히 보고 책임감을 배우지요.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옳고 그름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모범을 보이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성품을 가르친다는 것은 좋은 가치관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으면 더 이상 배우고 따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말도 깨진 관계 속에서는 그 말을 따르려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아이들과 함께하며 친밀함을 유지하는 것, 매일 무엇을 가르치려 하든보다 친밀한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 함께 있을 때 즐거워하는 것, 재밌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 이러한 일상이 자녀에게 책임감을 키워주는 비결이 됩니다.

성품은 가르침으로 학습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일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흘러보내는 최적의 기회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보여주는 책임감이야말로 자녀가 세상에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분별하게 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고 미디어의 다양한 유혹 속에서도 옳은 일을 선택하도록 양심의 기능이 강화됩니다.

좀처럼 이뤄질 것 같지 않았던 '하나 됨'의 기적은 각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고 끝까지 맡아서 잘 수행해 나가는 책임감의 성품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과 학교, 교회에서 해야 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하나' 되기를 소원하신 예수님의 기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시 '하나' 되는 책임감으로 이 땅의 모든 공동체가 새롭게 연합되는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goodtreeusa@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뉴욕브루클린제일교회 담임목사: 이윤석 주일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02:00 수요일예배: 오후 08:45 금요기도회: 오후 08:45 새벽기도회: 오전 05:30 성경공부: 오전 10:00 화,토 Tel: (718)265-2884, www.kfcb.org 14 Gravesend Neck Rd, Brooklyn, NY 11223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해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883-1977, Fax: (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전 1:30 주일3부예배: 오후 1:15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화-토) Tel: (917)733-7387, chungkita@yahoo.com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637-1470 45-50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사랑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예배: 오전 10:30 영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센트럴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www.pcpcny.org, Tel: (516)387-9840, 9842(EM) 154 Old Westbury Road Old Westbury, NY 11568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 1주, 3주) Tel: (201)342-9194, sundogchurch.org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찬양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요일 안양모임: 오후 8:30 Tel: (718)961-2171, Fax: (718)961-3631 215-29 42 Ave, Bayside, NY 11361	베이스айд 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종식 장년예배: 1부 오전 8:00 2부 오전 9:45 3부 오후 12:00 주일저녁예배: 오후 6:00 수요일예배: 오후 6:00 새벽예배: 오전 5:45 친교인양모임: 매주 토요일 오전 9:30 Tel: (718) 229-2858, www.nybaysidechurch.com/V2/ 45-62 211 St, Bayside, NY 11361	사랑의동산교회 담임목사: 강신용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후 1:00 주일 E.M: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20 Tel: 516)433-0862 8 Duffy Ave, Hicksville, NY 11801	빛과소금교회 담임목사: 정순원 주일 1부 오전 7:30분 주일 2부 오후 1:50분 주일학교 오후 1:50분 청년예배 오후 3:10분 새벽예배 오후 3:10분 새벽기도 매일 오전 6시 목요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7시 30분 Tel: (347)513-1351, cheongsoonwon@yahoo.com 45-11 149 St, Flushing, NY 11355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886-4040, www.kapcc.org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원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 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일예배: 저녁 9:00 714종보기도회: 아침 7:40 유, 중, 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김성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 (416)490-9060, 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 (808)947-5252,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멕시코 현지교회 선교사: 임한곤 선교사 1. 멕시코 반성 신학교 교수 2. 임마누엘 신학대학교 교수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주일2부예배: 오후 3:00 주일3부예배: 오후 5:00 Tel: (52)33-3507-4111, hanimkr@hanmail.net Goya 530 Manuel, Acuna, Guadalajara MEX(멕시코)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어나한인교회)

살아 있을 동안에 해야 할 일

지난 6개월 동안의 팬데믹 시대 목회는 단 한 번도 실행해 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세상의 목회 방법이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하여 예배당 문이 닫혔다. 유튜브에서 실시간 영상 송출 방법을 배웠다. 나와 아내 둘이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실황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서 유튜브를 통해서 송출하였다. 예배 후에 내가 송출했던 방송을 모니터해 보았는데, 예배 영상과 음질이 너무 조잡하여서 얼굴이 화끈거렸다.

우리 교회는 인디애나의 작은 도시에서도 옥수수 밭 한 모퉁이에 위치해 있어서 아직 인터넷 케이블이 없다. 교회에 설치된 전화 모델의 인터넷 평균

속도는 10Mb 정도이며 업로드 속도는 3Mb 정도이다. 그 속도로는 실시간 영상예배를 송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케이블 회사에 문의했더니 케이블을 교회까지 끌어오는데 5만5천 불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하였다. 그런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케이블을 설치할 수는 없었다. 그래서 영상의 질을 낮추어서 송출했으니 질은 조잡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과연 어떤 교우가 저 영상을 보면서 예배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본 교회 교우는 영상 예배에 입장은 하였지만 과연 누가 끝까지 인내하며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러다가 결국 영상예배도 드리지 않게 되거나 영상과 음질이 좋은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몰려왔다.

나와 아내는 송출 중단 위기로 기겁하며 가슴 조리며 겨우 실시간 방송을 해내고 있었는데, 부활 주일에는 결국 송출이 끊어지는 사고가 일어나고 말았다. 그 때에는 스트레스로 정신이 붕괴되는 것 같았다. 그 때부터 안전하고 나은 영상예배를 위해서 죽음을 다해서 노력했다. 그 이후 여러 회사의 실시간 방송을 위한 기계들(영상캡처 보드, 음성캡처 보드, 스피드 부스터, 외장 마이크 등)을 구입하고, 매뉴얼을 공부하고, 설치하고 테스트하기를 2개월 정도 하였다. 그런 류의 기계와 프로그램에 대한 지식

이 없던 나에게는 정말 힘든 시간이었다. 하나씩 구매하여서 밤새워 연구하고 설치하고 실패할 때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우리 교회 인터넷 속도로는 도저히 양질의 방송을 내보낼 수 없음을 깨닫고 포기하고 말았다.

그 후에 예배 영상을 미리 녹화해서 예배시간에 맞추어서 방출하기로 하였다. 다행히 찬양팀이 합세해서 큰 힘이 되어 주었다. 예배 방송을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배 시간에 다시 같이 예배드렸다. 주일예배,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새벽기도 등의 예배들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일에 일주일을 밤낮으로 작업하였다. 주일예배 녹화 시에는 찬양팀이 참석해주어서 설교 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요 성경공부와 새벽기도 시간은 나와 아내 둘이서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세계에서, 사막에서 홀로 설교하는 기분이었다.

8월부터는 주 정부에서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였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교우들을 교회에 오시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준비했다. 교우들이 각자의 차 속에 앉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100% 안전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인 예배용 트랜스미터를 구입하여서 설치하였다. 그 기계에 맞는 마이크 케이블을 교회 이곳저곳에서 찾아내어서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서너 개의 케이블들을 바꾸어 가면서 주었다. 예배 방송을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배 시간에 다시 같이 예배드렸다. 주일예배,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새벽기도 등의 예배들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일에 일주일을 밤낮으로 작업하였다. 주일예배 녹화 시에는 찬양팀이 참석해주어서 설교 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요 성경공부와 새벽기도 시간은 나와 아내 둘이서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세계에서, 사막에서 홀로 설교하는 기분이었다.

8월부터는 주 정부에서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였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교우들을 교회에 오시게 해야겠다고

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준비했다. 교우들이 각자의 차 속에 앉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100% 안전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인 예배용 트랜스미터를 구입하여서 설치하였다. 그 기계에 맞는 마이크 케이블을 교회 이곳저곳에서 찾아내어서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서너 개의 케이블들을 바꾸어 가면서 주었다. 예배 방송을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배 시간에 다시 같이 예배드렸다. 주일예배,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새벽기도 등의 예배들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일에 일주일을 밤낮으로 작업하였다. 주일예배 녹화 시에는 찬양팀이 참석해주어서 설교 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요 성경공부와 새벽기도 시간은 나와 아내 둘이서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세계에서, 사막에서 홀로 설교하는 기분이었다.

8월부터는 주 정부에서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였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교우들을 교회에 오시게 해야겠다고

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번에는 드라이브인 예배를 준비했다. 교우들이 각자의 차 속에 앉아서 라디오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면 100% 안전하기 때문이다. 드라이브인 예배용 트랜스미터를 구입하여서 설치하였다. 그 기계에 맞는 마이크 케이블을 교회 이곳저곳에서 찾아내어서 설치하고 테스트를 하는데 도저히 작동이 되지 않았다. 서너 개의 케이블들을 바꾸어 가면서 주었다. 예배 방송을 녹화하고, 녹화된 내용을 편집하고, 편집된 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하고, 예배 시간에 다시 같이 예배드렸다. 주일예배, 수요 성경 공부, 토요 새벽기도 등의 예배들을 준비하고 송출하는 일에 일주일을 밤낮으로 작업하였다. 주일예배 녹화 시에는 찬양팀이 참석해주어서 설교 시에 큰 도움이 되었지만 수요 성경공부와 새벽기도 시간은 나와 아내 둘이서 준비하다 보니 다른 세계에서, 사막에서 홀로 설교하는 기분이었다.

8월부터는 주 정부에서 예배당 예배를 허락하였다. 감염 예방을 철저히 준비해놓고 교우들을 교회에 오시게 해야겠다고

dik0184@yahoo.com



KAPC 목회와 신학 포럼 두번째 시간이 '팬데믹 시대의 도전을 변화와 기회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팬데믹시대 도전을 변화와 기회로”

KAPC 2회 목회와 신학 포럼, 강사 정민영 선교사

미주 한인 예수교 장로회(KAPC, 총회장 조문휘 목사)가 주최한 목회와 신학 포럼 두 번째 시간이 '팬데믹 시대의 도전을 변화와 기회로'라는 주제로 25일 오후 5시(미서부시간) 줌미팅으로 열렸다.

이날 정민영 선교사가 강사로 나서 강의했다.

정민영 선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으로 교회들이 대면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이라는 비대면 예배로 전환됐는데 과연 교회가 공예배로 모이지 못해 패닉에 걸릴 이유가 있을까? 우리가 대면예배 못 드린 것으로 패닉에 걸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정 선교사는 "예배의 본질이 무엇인가? 진정성 없이 의전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부당스러워 하신다"며 "진정성을 회복해야 한다. 복음의 가치를 살아

나야 하는데 지금이 복음의 가치를 살아내야 하는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율법의 문구보다 율법의 정신으로 우리 시선을 돌려야 한다"며 "예배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무엇일까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에서 친교를 말하지만 성육하지 않은 코이노니아는 잘못된 것이다. 교회를 떠나가나안 성도들을 생각해볼 때 그들의 다수는 조신자가 아닌 한국교회개혁을 위해 필요한 자들이 가나안교인들인 만큼 그들이 다시 코이노니아로 돌아올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유령교회를 생각할 때 단지 교회출석만을 가지고 유령기독교가 끝났다고 보면 안 된다. 믿음을 떠나 것은 아니지만 제도권 교회를 떠나

는 것이며 이러한 현상을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종교개혁운동을 생각해볼 때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끝난 것이 아닌 각 시대별로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건강한 교회론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역사적으로 교회에 재난이 닥쳐왔을 때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 시대 신학을 반영한다"며 "재난의 상황이 왔을 때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임해야 하기에 하나님나라 복음의 공공성과 공공선의 구현이라는 개념으로 고난당한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교회가 민폐집단으로 가는지를 고민하며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온라인 예배로 인해 대면예배가 제약된 것에 대한 염려가 있다. 하지만 대면이 자유롭던 시절 우리는 진정한 공동체였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라며 "성육적 공동체가 형성된 상태에서 온라인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온라인 공동체를 진정한 성육적 공동체라 말하기가 어렵다. 그 이유는 악플이 존재하는 것은 공동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온라인 매체를 성육적 사역의 보안도구로 활용해야 하며 사역을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성급한 결론은 위험하다"고 온라인에 의한 비대면 사역에 대해 경계했다.

(박준호 기자)

그레이크뮤니티교회 실내예배 허용

가주법원, LA카운티 신청 교회 임시금지령 기각

남가주 샌블리에 위치한 그레이크뮤니티교회(담임 존 맥아더 목사)가 인원수 제한 없이 실내 현장예배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크리스토퍼스 8월 26일 기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법원은 COVID-19 대응행태가 발생한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가 교회를 상대로 실내예배를 올렸다는 이유로 임시 금지명령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미셸 베를로프 판사는 "지난 화요일 캘리포니아 고등법원에서 교인들이 교회출입을 금지하기 위한 명령을 얻으려는 시도는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했고 항소법원의 명령이 새로운 임시 접근금지 명령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맥아더 목사를 비롯한 그레이크뮤니티교회와 LA시 사이 소송에 대한 공판은 내달 4일로 열린다.

목회자들을 대변해온 법률단체 토마스모어소사이어티 특별검사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의 임시 접근금지 명령 갱신신청이 절차적·실질적으로 결함이 있다"며 법원의 판결에 찬사를 보냈다.

폴조나 특별검사는 "그들이 그레이크뮤니티교회의 실내예배

를 금지하는 법원명령을 받기 위해 4회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말하며 "우리는 이 중요한 사건에 대한 후속소송에서 교회가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를 완전히 정당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카운티 관계자들은 일부 카운티의 교회들이 대유행 속에서 실내예배를 자제할 것을 명령한 개빈 뉴섬 주지사의 명령을 어기고 지난달부터 직접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맥아더 샌블리에 위치한 교회를 폐쇄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으려고 시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24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LA시가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 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는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준호 기자)



제16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가 Virtual 컨퍼런스로 진행됐다.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

제16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 Virtual 컨퍼런스로

GIM(글로벌 국제선교·교회연합)이 주관하는 제16회 글로벌국제선교대회(대회장: 정운명 목사, 월넛크릭GIM교회 담임)가 8월 30일 오후 5시 산호세의 Foxworthy Baptist Church(담임목사 Don Fugate)의 호스트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 미국 주류교회를 중심으로 한 여러 민족교회들이 연합해 Virtual 컨퍼런스로 개최됐다.

이번 대회 주제는 '그의 영광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 지어다'(시96:3)로, 패널에서는 '진리와 자유'(요8:32) 주제에 맞춰 진행됐다.

2020년 선교대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 전국에서 한인교회를 비롯 미국(흑백인) 주류교회, 중국, 미얀

마, 인도네시아, 루마니아, 파키스탄, 에티오피아, 라틴, 이스라엘, 아랍교회 등 30여 민족교회가 모여 미국과 열방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

또 미국과 한국, 홍콩을 비롯한 민족의 지역 선교보고도 있었다. 이날 대회 인사말에서 대회장 정운명 목사는 "Virtual로 여러 민족이 함께하는 금년도 미션 컨퍼런스를 시청하는 열방의 민족들에게 복음의 은총을

기원한다"고 전했다.

주 강사인 Rick Durst 박사(Gateway Seminary)는 "그의 이름을 열방에 선포하라"(시96:3)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전했다으며 패널은 정운명 목사 사회로 7명의 위원들이 참여해 미국교회가 기독교 신앙의 핍박과 이를 보호할 자유민주주의가 위협받는 국가의 교회를 위해 미국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 논의됐다.

패널에 이어 미국과 한국, 열방을 위한 Chain of Prayer(함심기도)가 있었다.

또한 민봉기 목사(산호세 주님의사랑교회 담임)는 "지난 6월 홍콩보안법 통과 후 홍콩의 인권탄압과 자유가 파괴된 것 같이 대한민국도 공산체력과 그 추종자들로부터 신앙과 자유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돼 진리의 그리스도 복음으로 한반도 전체가 소망으로 자유를 누리게 해야 한다"면서 미국교회들의 기도후원을 요청했다.

(기사제공: GMI)

시즌2 COVID-19 한인정신건강 세미나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정신건강국, 온라인으로

로스앤젤레스카운티 정신건강국은 커뮤니티의 뜨거운 호응으로 지난 5월과 6월, 연인원 600명이 넘는 참가자를 통해 제공했던 COVID-19 한인정신건강 온라인세미나 시리즈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아울러 참가자 및 커뮤니티의 요청에 이어 시즌2 COVID-19 한인정신건강 온라인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해 9월 9일(수)부터 10월 7일(수)까지 5주간 정신건강 온라인 세미나

를 한인에게 무료로 제공하게 된다.

시즌2 시리즈는 정신건강문제의 유발요소가 될 수 있는 우리 삶의 이슈들을 다루는 것을 목표로 자존감과 건강한 삶, "자기관리와 건강한 마음", "분노조절과 원만한 관계", "외로움과 의사소통", "문제해결의 기술" 등 다양한 주제의 강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의 안정영, 이주호, 유순태,

김재원 등 임상심리 전문가들과 KYVCC의 에릭 지 박사.

온라인 세미나 등록신청 링크: <https://www.research.net/r/COVID19KR>,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복사해서 전달할 수 있는 Flyer 링크: <https://www.research.net/r/COVID19Seminar>, 온라인 세미나에 대한 자세한 정보 및 등록: <https://www.research.net/r/COVID19Flyer>

▲이메일 문의: jkim@dmh.lacounty.gov LA 카운티 정신건강국 훈련부서

(기사제공: LA카운티 정신건강국)

타미워커와 함께하는 ‘예배찬양’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세미나 개최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는 9월 15일(화)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이 시대 최고의 예배 인도자이자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과 겸임교수인 타미 워커(Tommy Walker) 강사와 함께하는 예배 찬양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온라인 세미나는 목회자, 찬양사역자, 신학생, 예배

찬양에 관심 있는 자로 타미 워커의 찬양과 예배 이야기 및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된다.

이번 세미나는 선착순 50명으로 인원이 제한된 가운데 신청자에게는 줌(Zoom) 참가번호를 공지하며 참가비는 없다.

강사 타미 워커는 현재 LA 북부 크리스천어셈블리교회(Christian Assembly Church)

예배 인도자로 섬기고 있는 찬양사역자 겸 목회자로, CFNI(Christ For The Nations Institute)에서 실천신학을 공부하고 이후 할리우드에 위치한 MI의 기타 학교(Guitar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재즈 및 퓨전을 공부했다.

타미 워커는 복음에 대한 열정과 개성 있는 음악으로 자신만의 길을 가고 있는 이 시대 최고의 찬양예배 인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살 때 참석한 찬양 예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

는 그는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서, 인생을 주님께 드리기로 헌신한 이후 세계를 순회하는 전 문찬양사역자이자 싱어송 라이터로 활동하고 있다.

한인들에게도 널리 잘 알려진 그의 대표적인 찬양곡은 '내 이름 아시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슬픔 변해 기쁨을', '나는 주만 높이지',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등이 있다.

▲문의: (213) 388-1000 wmuinfo@wmu.edu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

월드미션대학교 부설 한인 기독교상담소(총장 임성진 박사)가 지난 3월 이후코로나 사태로 문을 닫았다가 이번 주부터 새롭게 문을 열고 내담자를 받고 있다.

그동안 비대면 상담을 준비해온 한인 기독교상담소에서는 이제부터 모든 상담을 Zoom을 통한 온라인 방식으로 전환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시간적, 지역적 제한으로 상담이 필요해도 받지 못했던 분들에게 언제 어디서나 편안하게 온라인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됐다.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심리적 고통이 증가하고 상담을 받고자

하는 필요가 급증한 이 시기에, 한인 기독교상담소에서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로 고통 받고 있는 분들에게 한국어로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단,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로 온라인에 접속해 Zoom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상담을 본격적으로 제공함에 따라 월드미션대학교 상담심리학과에서는 이 지역에서 최초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필수적 상담 방법인 온라인 상담을 모든 대학원생들에게 실습을 통해 직접적으로 훈련시키는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상담을 원하면 (213)388-1000으로 전화해 신청하면 된다.

(기사제공: 월드미션대학교부설 한인 기독교상담소)

교계 기사판

뉴저지교협 제 34차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장동신 목사) 제34차 정기총회가 9월 15일(화) 오전 11시 주님의은혜교회(담임 최준호 목사)에서 열린다. 한편 회장후보로 현 부회장 최준호 목사만 등록하고 부회장 후보는 등록자가 없어 공천위원회에서 부회장 후보를 추천해 총회에 상정하게 된다. 뉴저지교협의 정부회장 임후보자 자격은 △가입 5년 이상 된 자 △목사 안수 받은 지 10년 이상 된 자 △최근 5년 동안 회비를 완납한 자 △본회의 임원 또는 실행위원을 역임한 자 등이다. 등록서류는 △등록원서 1통 △소속교단 추천서 △이력서 1통 △사진 1매 등.

▲문의: (201)787-1422

살롯장로교회 설립 43주년 감사예배

살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설립 43주년 감사예배가 팬데믹으로 한 달 후로 미뤄진 9월 27일(주일)에 열린다. 한편 같은 날 졸업예배도 함께 드린다. 2020년 졸업생은 △고등부: 전주원, 문케빈 △중등부: 정하영, 전아이제이아 △유치부: 김지우 등 총 5명.

▲문의: (704)529-0900

은혜주신교회 이취임 감사예배

뉴욕 은혜주신교회가 9월 6일(주일) 오전 11시 30분 본 교회당(188-12 73Ave, Fresh Meadows, NY 11366)에서 김홍익 원로목사 추대 및 노영민 담임목사 취임 감사예배를 드린다.

▲문의: (347)260-1819

부모회복학교(HMMS) 개강

낮은울타리 미주본부(대표 조희창 목사)가 주최하는 부모회복학교(HMMS)가 9월 14일부터 11월 2일까지 8주간 매주 월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미주동부시간) 화상앱 ZOOM으로 열린다. 등록비는 \$50달러(젤라나 페이팔, 벤모로 입금할 수 있다(Zelle-wooltarius@gmail.com PayPal-paypal.me/wooltari Venmo-wooltarius)).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작성한 후 등록비를 입금하면 완료된다(https://forms.gle/ge713frT6ucMa-beP8)

▲문의: (646)300-4790 wooltarius@gmail.com



2020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회로...

2020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

뉴욕교협이 주최하는 2020 할렐루야 뉴욕복음화대회 2차 준비기도회가 8월 27일 오전 10시30분 뉴욕그레이트네교회(담임 양민석 목사)에서 열렸다.

회장 양민석 목사는 “대회 개최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있었지만 이 시기에 대면예배를 통해 예배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자고 Let's go together에 맞춰 대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며 “교회연합을 넘어 사회를 이끌어가고 미래를 열어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또 장학금 지급을 한인사회로 확대시켜 교회안 50%, 교회밖 50%를 지급하고 수여자들은 집회에 참석해 전도의 기회로 삼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예배는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 인도로 기도 조원태 목사, 성경봉독 손성대 장로, 설교 김종훈 목사, 합심(통성)기도 정숙자 목사(할렐루야대회 준비위원들을 위한 기도), 심화자 목사(뉴욕교계와 차세대들을 위한 기도), 김경렬 목사(주강사인 황성주 목사와 마이클즈 선교사를 위해), 축도 한재홍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종훈 목사(증경회장, 뉴욕 예일장로교회)는 “무지개를 뚫습니다”(창9:8-17)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1년10일을 방주 속에

있었던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 제일 먼저 한 일은 번제를 드린 것이었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①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며 ②예배를 회복하고 ③사명을 감당하는 3가지를 잊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 목사는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고 했는데, 요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 끝나면 그전처럼 예배하게 되며 이는 새로운 예배회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노아에게 창조 후 하신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주셨다”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는 창조세계를 잘 관리하는 진실한 청지기라 되라는 의미로, 이번 할렐루야대회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회, 예배가 회복되는 대회, 사명을 리셋(reset)하는 대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뉴욕교협은 2차 구원기도(오후 9시 1분간)를 계속 하고 있다고 공지했다. 또 3차 준비기도회는 9월 10일(목) 뉴욕 효신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 부회장)에서 열린다.

할렐루야뉴욕복음화대회는 9월 18일(금)부터 20일(주일)까지 3일간 프라미스교회(담임 허연행 목사)에서 열린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8월 넷째 주 임원회 및 할렐루야복음화대회 준비위원 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교협 8월 넷째 주 임원회 등 모임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양민석 목사)는 8월 25일 오전 10시30분 교협회의실에서 8월 넷째 주 임원회 및 할렐루야 2020 대뉴욕복음화대회(이하 복음화대회) 준비위원 모임을 가졌다.

1부 예배는 김희복 목사 인도로 유승례 목사의 기도, 이재덕 목사의 말씀, 합심기도(1.복음화대회와 주강사 황성주(박사)목사와 마이클즈 선교사 및 순서지를 위해: 안경순목사, 2.복음화대회 및 2차 준비기도회 및 홍보, 동원, 안내, 안전과 재정을 위해: 김진영목사, 3.뉴욕교계와 차세대들을 위해: 권케더린목사), 이창종목사의 광고, 양민석목사의 축도 등으로 진행됐다.

이재덕 목사(교협 증경회장)는 마가복음 5장25-34절을 인용한 ‘혈루병과 여인의 소망’이란

제목의 말씀을 통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을 전달하는 역사와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복음화대회를 통해 일어나길 축원한다”고 전했다.

2부 회무는 양민석 목사의 사회, 손성대 장로의 개회기도, 문정용 목사의 전회의록 낭독, 이창종목사의 회무보고, 김희복 목사의 할렐루야 준비위원 보고, 안건토의 ‘D-25’(9/18-20) 2차 준비기도회(8/27) 뉴욕그레이트네교회·순서 및 준비(오찬), 홍보·Poster·Flyer배부, 지원금(공문) Mailing·광고물부착·인터넷과 카카오톡·기타 언론 방송, 후원금연락(교회)·광고(단체와 사업체), 인원동원 및 안내분과 준비, 특별순서지 선정(성가대, 중창단, 특송, 피아노)등의 토의 후 폐회 및 오찬기도로 끝났다.

(기사제공: 뉴욕교협)

기감 미주자치연회 첫 감독 화상선거

〈1면에서 계속〉 할 수 있는 시간상의 여유도, 또한 누가 선거인단이 될지 알 수 없다. △누구든지 연회에서 인정받은 감독후보가 되고 감독이 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학연/지연/경과/권선정거가 잘 방지됨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임승호 감독 당선자는 이번 10월 기독교대한감리회 제 34차 총회에서 취임하면 연신출신으로 첫 감독이 된다.

이에 대해 김병태 목사는 “소수 중의 소수”가 감독이 되는 사례로, 본인뿐 아니라 미주연회에게도 명예로운 자랑거리가 되며 선거로 오랫동안 후유증을 겪는 한국의 감리교 총회와 연회에게도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이 모든 것이 지도자의 역할로 은혜로 감독의 지도력 하에 연회실행부가 잘 협조해 마침내 한국감리교회를 선도하는 결과를 이번에 보였다”고 자평했다.

(유원정 기자)



영생장학회 제4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총 35명에 65,400달러 지급

영생장학회 제4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

필라델피아 영생장로교회(담임 백운영 목사)는 지난 8월 5일 제 4회 영생장학회 장학금 수여식 및 감사예배를 가졌다. 이번 장학금은 총 35명에게 65,400달러의 장학금이 지급됐다.

영생장학회는 2016년 이용걸 원로목사가 은퇴하면서 받은 전별금을 모두 교회에 헌금하면서 시작돼 지난 4년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와 목회자 자녀들 그리고 신실한 크리스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장학회 설립 후 자선 골프대회와 음악회 행사를 통해 영생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타 교회 교인들도 장학금 기부에 참여해왔다.

장학금 수여식에 앞서 장학위원장 장순영 장로의 사회로 진행된 감사예배에서 이용걸 원로목사는 베드로후서 3장 8-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재림 신앙’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이용걸 목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의 시간을 재림신앙으로 이겨내야 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깨어있어 재림신앙으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 또한 재림의 소망 가운데 결단하고 시대를 분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진 2부 장학금 수여식은

장학회 부위원장 심수목 장로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장순영 장학위원장의 장학회 소개, 송홍창 집사의 재무보고 및 영태선 집사의 사임보고에 이어 장학회 사무총장인 이세형 집사와 각 장학금을 소개하고 수여자들의 감사인사 영상과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다.

이날 장학금 수여식에는 총 35명의 수여자중 11명이 참석했으며 이용걸 원로목사, 백운영 목사 외에 장학금을 후원한 후원자들이 직접 장학금을 수여했다. 이어서 참석한 모든 목회자와 장로들이 장학금 수여자들을 위해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후 백운영 목사의 마침기도와 행사팀장인 박혁진 집사의 광고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됐다.

영생장학회를 통해 장학금을 받은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도움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장차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영생장학회를 통해 더욱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장학금 수여자는 △스웨스트 민스터신학교 장학금 2명 △동부개혁신학교 장학금 3명 △다음세대지도자 장학금 10명 △디모데 장학금 5명 △일방장학금 12명 △특별장학금 3명이다.

(기사제공: 필라 영생장로교회)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복 받을 때를 찾으라”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 설교 라흥채 목사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8월 정기예배가 지난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뉴욕 기쁨과영광교회에서 열렸다.

회장 권케더린 목사는 “팬데믹 사태 속에서 선교지는 더 어렵다”며 “기아대책 본부에서도 형편을 감안해 2/4분기 송금을 9월까지 유예해줬으나 선교지 사정을 고려해 지난주에 송금했다”고 밝히고 본 기구의 주요사업인 아동결연에 더욱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권케더린 목사 인도로 기도 박이스라엘 목사(사무총장), 특송 오카리나&색소폰 연주 정바울 목사(퀸즈소망교회), 설교 라흥채 목사(뉴욕제자들교회), 합심기도(△본 기구 회장 및 회원들을 위해 △결연아동과 후원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폴름비어 최혜정 선교사, 페루 김중원 최은실 선교사, 과테말라 장경순 박윤정 선교사, 코스타리카 김형구 이선미 선교사, 엘살바도르 황영진 황은숙 선교사), 축도 장석진 목사(이사장) 순서로 진행됐다.

라흥채 목사는 “복 받을 때를 찾으라”(신28:12)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께서 복에 대해 창세기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부터 오

늘분문과 마태복음의 팔복 그리고 계시록에서 칠복에 대해 말씀하셨다”며 “우리는 지금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가? 다니엘서의 69이레 후 계시록의 70이레 사이에 살고 있는데 그 사이에 사도행전이 있었다”며 “지금 이방인이 구원받는 시대”라고 역설했다.

라 목사는 “하나님의 징계방법은 4가지로 칼과 기근, 짐승, 바이러스인데, 재난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는 첫째, 미혹 당하지 말라, 둘째, 두려워말고 실망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말씀하셨다. 팬데믹 사태지만 기아대책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담대하게 계속해 나가기 바란다”고 전했다.

권케더린 목사의 개회기도 후 시작된 회무에서 사무총장 박이스라엘 목사는 “그동안 팬데믹으로 후원비가 잘 모금되지 않았는데 일대일 전화통화를 통해 잘 진행되고 있다”며 현재 후원아동 104명에 대한 후원은 잘 이뤄지고 있다고 보고했다.

회무는 삼일교문 유상열 목사의 폐회기도로 마쳤다.

9월 월례예배는 23일(수) 오전 10시30분 열린다. 장소는 미정.

(유원정 기자)



뉴욕 프라미스교회 임직식에서 안수위원들이 장로 장립자들에게 안수하고 있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이 되라”

뉴욕 프라미스교회 119명 임직감사예배

뉴욕 프라미스교회(PMI, 담임 허연행 목사) 임직감사예배가 8월 30일 주일 오후 4시 본 교회당에서 열려 119명이 임직했다. 임직자는 장로장립 11명, 협동장로 4명, 집사안수 33명, 권사임직(취임) 71명.

허연행 목사는 “어려운 시기에 임직식을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코로나로 인해 임직자와 가족 1명 등 300명만 현장에 참석하고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한다”고 밝히고 “임직식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AG 동북부지방회에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1부 예배는 허연행 목사 인도로 기도 감찬만 목사(동북부지방회 부회장, 은누리순복음교회 담임), 성경봉독 이학용 목사(동북부지방회 부회장, AG아가페연합교회 담임), 찬양 예루살렘 중창단, 설교 Pete Richardson 목사(Grace Ministries in PMI), 봉헌기도 김영철 목사(전 동북부지방회 회장,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순서로 진행됐다.

본 교회가 맨해튼 교회당을 사용하면서 친분을 쌓았던 Pete Richardson 목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기둥들”(계3:12)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은 천국에 세울 기둥을 찾고 계신다”며 “첫째, 기둥은 튼튼하고 지혜로워야 하며 둘째, 하나님의 집을 아름다움을 나타내야 한다. 셋째, 기둥은 승리한 사람들로 부터 나온다”고 말하고 “임직자들은 하나님께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우셨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부 임직식은 협동장로 취임과 권사임직은 허연행 목사가, 장로장립과 집사안수는 안수위

원장 이성달 목사(동북부지방회 장, 뉴욕조선총교회 담임)가 집례 했다. 임직자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켜 6명씩 단 위에 올라 서약과 안수, 공포, 안수증서 수여 등을 진행했다.

3부는 축하순서로 축가 송은별 지매, 축사 김명옥 목사, 김성국 목사, 권민 이광희 목사, 답사 강철웅 장로, 선물증정 등이 이어졌다.

김명옥 목사(AG한국총회 총회장, 뉴욕에은교회 담임)는 임직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으로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보여줘야 할 것을 보여주지 않는 것을 언급하며, 가정법 미래형을 사용해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을 것 △천국 문을 무사통과할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김성국 목사(퀸즈장로교회 담임)는 “임직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축하한다”며 “△하나님의 기쁨 받는 직분자가 된 것 △페이(pay, 상)를 받게 된 것 △허연행 목사님과 동역하게 된 것을 축하한다고 말했다.

이광희 목사(전 AG한국총회 총회장)는 권사와 안수집사와 장로를 따로 세워 △필요를 채워주는 교인들의 보호자 △성령과 지혜로 가는 곳마다 복음 전파 △담임목사를 돕는 직분임을 강조하며 권면했다.

임직자 대표 강철웅 장로는 “겸손과 섬김을 뜻대로 목사님께 더욱 순종하며 교인들 앞에 솔선수범하는 ‘코로나 임직자’들이 되겠다”고 답사했다.

모든 순서는 김남수 목사 축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2020 미국 청교도 이주 400년 기념 특집

“청교도 신앙 회복 및 부흥(復興)” (17)

Puritan Restoration and Revival

김경일 목사

(남가주 청교도 이주 400주년 기념 책자 저자 / 남가주행복찬교회담임)



2) 청교도들은 성경적 경건한 의무(Godly Duty)와 자기 부정(Self-Denial)에 충실한 자들이었다.

(2) 자기 부정(自己否定, Self-Denial)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자기(自己)를 부정(否定)하고 십자가(十字架)를 지는 삶이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核心)이며, 기독교적 경건의 결정체(結晶體)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의 성공(成功)과 안락(安樂)과 평안(平安)함을 추구(追求)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

토마스 맨튼(Thomas Manton, 1620-1677)은 그의 대표적 저서 ‘자기부정(Self-Denial)’에서, 우리는 아무런 공로(功勞)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恩惠)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子女)가 되고 구원(救援)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주권(主權)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구원은 값없이 받지만, 구원(救援)받은 성도(聖徒)의 삶은 자기부정(自己否定)과 십자가(十字架)가 따르는 삶이다. 그것은 바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갈 2:20)이며, 나의 영광(榮光)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했다. 이렇게 청교도들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의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았다.

존 카튼(John Cotton, 1582-1652)은 “판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주님의 것이다”라고 일깨워 주었다. “우리 도시와 마을과 우리 집도 주님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모든 것

에서 주님을 인정(認定)하자.” 자신을 위해 “지혜, 부, 존경, 패락”을 얻고자 노력하며, 이런 것들을 “우리의 소망과 바람들의 으뜸”으로 삼는 것은 분명히 우리의 노력(努力)과 행복(幸福) 모두가 궁극적(窮極的)인 상실(喪失)로 끝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카튼 매더(Cotton Mather, 1663-1728)는 자기 증대(自己增大)를 구하는 “개인 정신(Private Spirit)은 많은 책망(責望)을 받아야 하는 악(惡)”이라고 칭했다. 1690년에 매더는 “아아 불쌍한 개인 정신이여, 이 개인 정신은 우리와 마주치는 다른 모든 악한 것들보다 우리나라에게 더 음침한 국면을 갖고 있다”라고 한탄했다.

심지어 매더가 개인 정신이라고 언급한 바를 토마스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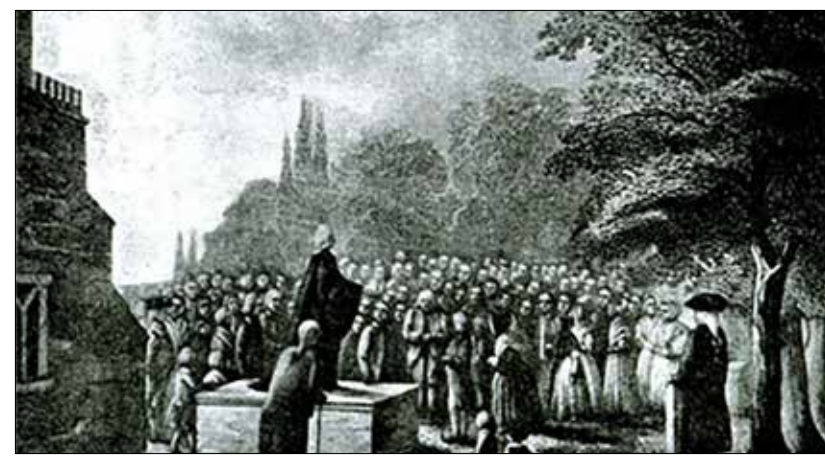
한 거룩한 삶을 청교도들은 추구(追求)했다.

3) 청교도들은 성경의 진리를 연구(Research)와 삶(Life)으로 설교(說教)한 자들이었다.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紳士的)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들은 여전히 말씀의 권위(權威)를 가진 사람들로서 특별한 방식으로 글을 쓰고 설교했다.”

청교도들은 헬라이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서 성경 본문의 바른 의미(意味)를 알고자 하였으며 성경의 본문을 올바르게 해석(解釋)하고자 노력하였고



복음위해 이 땅에서 안락한 삶 포기하고 십자가 지는 삶 살아 설교방향: ①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전파 ②말씀의 강력한 적용

커(Thomas Hooker, 1586-1647)는 “자기 사랑이라는 배신죄(背信罪)”라고 칭했다. 자기 사랑의 태도는 마귀의... 대표적인 작품이며 마귀가 항상 그 위에 자신의 왕국(王國)을 세운 근본적(根本的)인 대설계도(大設計圖)가 된다.

후기에 의하면 자기 사랑과 대조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근본이며 실로 모든 신학(神學)의 대설계도는 “자기 부인”(Self-Denial)이다. 청교도들이 철저하게 자신들의 의무(義務)로 삼았던 것들은 성수 주일, 예배, 기도, 찬양, 선행... 특히 마귀(魔鬼)의 대설계도인 개인 정신, “자기 사랑이라는 배신 죄”를 추종(追從)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설계도(大設計圖)인 자기 부인의 진정하고 경건

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詳考)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니”(행 17:11-12).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1770)는 “청교도들은 빛 가운데 불타오르는 그러한 빛의 사람들이었다. 검은 성 바돌로뮤의 날(1572년 8월 24일부터 10월까지 위그노 전쟁 중이었던 프랑스 파리에서 가톨릭 세력이 개신교 신자였던 위그노인들에게 행한 대항 살. 그 이유는 학살이 시작된 8월 24일 밤이 가톨릭에서 예수의 12사도였던 바돌로뮤의 축일에서 유래)의 조치(措置)에 의해 쫓겨나 대로와 울타리와 헛간과 들에서 조차 설교할 권리를 박탈(剝奪) 당했을 때, 그

찾은 진리(眞理)를 인간의 제도(制度)나 사상(思想)을 따라 구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서 바른 설교를 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예전(例典)이나 의식(儀式)보다는 설교(說教)를 중요(重要)시하여 예전을 중시하던 미신적인 가톨릭의 전통(傳統)을 배제(排除)하고 말씀을 통한 생활의 변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예배(禮拜) 시간은 설교(說教) 시간과 같은 의미로 사용될 정도로 설교,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을 중요시하였다.

청교도들은 지성(知性)과 마음을 서로 상충(相衝)하는 것으로 여기는 구조(構造)를 거부하고, 지식(知識)은 성령(Holy Spirit)이 중생(重生)의 씨앗을 심는 토양(土壤)이라고

가르쳤다. 그들은 지성(知性)을 신앙(信仰)이 머무는 전당(殿堂)으로 이해했다. 카튼 매더는 “무지함은 경건의 어머니가 아니라 이단의 어머니일 뿐이다”라고 말했다.

청교도들은 지성(知性)이 없는 기독교는 뼈가 없는 연체동물(軟體動物)과 같다고 생각했다. 반지성적(反知性的)인 복음은 빠른 속도로 “필요성을 느끼는 것”을 채우는 것으로 나아갈 수 없는 텅 빈 혹은 형태(形態) 없는 복음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리처드 벅스터(Richard Baxter, 1615-1691)는 “나는 다시 설교하지 못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자로 간주하여 마치 저 세상에 다녀온 사람처럼 저 세상에 대하여 말하였다. 그가 생명(生命)을 담보(擔保)로 삼고 설교할 때 2,000명에서 3,000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운집하여 협소한 장소

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임을 강조하고,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유일한 대상이 그리스도임을 제시했다.

또한 신앙인(信仰人)의 삶의 방향(方向)이 경건(敬虔)과 거룩함을 일깨웠고, 철저한 직업(職業) 소명(召命)을 가졌다. 하나님을 경외(敬畏)하는 건전한 가정생활(家政生活)은 세상의 쾌락(快樂)과 사치(奢侈)로부터 돌아서게 했다. 16-17세기 주의 몸 된 교회의 신실한 종이었던 퍼킨스(William Perkins)와 에임스(William Ames)의 설교론(說教論)은 오늘 21세기 목회자와 설교자들에게 귀한 교훈(教訓)과 경종(警鐘)을 준다.

특히 퍼킨스는 당시 어려운 영적 상황을 직시하며 경건의 삶이 없는 설교자들을 질타한다. “오늘날 회심자가 적은 이유는 자기 자신과도 화목하지 않은 하나님께 다른 사람들을 화목 시키고자 하는 목사들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이다.”

그들의 설교방향은 두 가지로 요약(要約)할 수 있는데, 첫째는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전파(傳播)이며, 둘째는 그 말씀의 강력(強力)한 적용(適用)이다.

교회를 통해서 불 때 교회의 타락(墮落)은 설교(說教)의 타락(墮落)에서 출발(出發)한다. 그러므로 설교자의 지식, 학문을 숨겨져야 하고 오직 성령의 역사가 설교에서 드러나야 한다. 왜냐하면 설교자가 전달하는 말은 인간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다. 설교자의 사역을 생명력 있게 하는 것은 그 설교자 안에서 그리고 그 곁에서 역사하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이다.

청교도주의(淸教徒主義, Puritanism)를 부흥운동, 각성운동, 설교운동으로 평가하게 되는 것은 근저(根柢)에 성경운동(聖經運動)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청교도들에게 있어 설교(說教)는 참으로 중요했다. 설교자가 성경의 진리대로 먼저 삶을 살았고, 교인들 역시 그 설교자(說教者)의 삶을 모델(model)로 순종(順從)했다.

kimjohy@hot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Table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pastors, including: 금란교회, 든든한교회, 로마인교회, 새에덴교회, 성문교회, 성실교회, 성일교회, 수정교회, 승도교회, 시온소교회, 신길교회, 신천교회, 신촌교회, 안암 제일교회, 양곡교회, 양성교회, 장위제일교회, 주안교회, 창대교회, 청주주님교회, 충신교회.

9월 '모이는 총회' 어쩌나...교단들 깊은 고민

예장통합 온라인전환결정 총회 규칙부 '불가' 해석 제동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조치로 수도권에서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상향하면서 주요 교단들이 정기총회 개최 방법을 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김태영 목사)은 지난 26일 임원회를 열어 오는 21-22일 서울 도림교회에서 개최할 예정인 총회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임원회는 총회장과 부총회장을 비롯한 총회 전체 임원이 참여하는 의결기구다. 예장통합은 도림교회에선 부총회장 선거와 임원 이취임식만 진행하고, 이를 전국 30여

개 지역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2017년부터 총회 산하 부서 실행위원회 회의를 온라인으로 진행해온 교단은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28일 총회 규칙부가 처리회의의 온라인 화상 회의는 불가하다는 해석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렸다.

화상회의 도입 초기에 교단은 '조직, 법률제·개정, 인준은 화상으로 할 수 없다'는 세칙을 통과시켰다. 규칙부가 총회를 온라인으로 할 수 없다고 해석한 이유다. 교단 임원회는 당일 또다시 규칙부에 온라인 총회 개최 여부를 질의했다. 변창배 사무총장은 31일 "현재

는 재난 상황인 만큼 규칙부에 다시 한번 법률 해석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코로나19 확산세를 봤을 때 온라인 총회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말했다.

오는 21일부터 양일간 경기도 용인 새에덴교회에서 총회를 여는 예장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도 31일 임원회를 열고 '모이는 총회' 진행 여부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온라인 총회에 준하는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임원들은 결론을 유보했다.

예장합동은 조만간 임원회를 다시 열어 이 안건을 다루기로 했다. 최우식 총무는 "다양한 방안을 두

고 논의했다"면서 "아직 시일이 남은 만큼 모든 상황을 감안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의 선거를 치러야 하는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도 고민이 크다. 기감은 1만명의 선거권자가 오는 29일 전국 11개 지역에서 연회 감독과 감독회장을 선출한다. 투표장마다 400~1200명의 선거권자가 방문할 예정이다. 기감은 10월 29-30일 총회도 개최한다.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기감 본부의 한 관계자는 "선거권자를 완전히 확정 짓지 못해 선거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도 많지만,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코로나19 거리 두기 단계가 상향되면 모일 방법이 없어진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말했다.

앱은 현재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할 수 있다.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4개국어로 제작돼 해외 전도에도 활용할 수 있다.

참여 방식이 버튼을 누르는 것인데 그치는 등 안정적인 부분은 아쉬운 지점이다. 총회는 앞으로 1-2주간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 후 정식으로 산하 교회에 전도지를 보급하고 전도에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전도부장 김호겸 목사는 "4차 산업혁명에 특화된 기술을 교회가 활용해 더 친밀하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며 "AR 전도지를 통해 한국교회에 전도의 봄이 되살아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장하고 폭력을 선동하는 일체의 행위에 반대합니다"라고 밝힌다. 평화의 사도로서 교회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선교부는 1년간 준비 끝에 이 같은 전도지 10종을 선보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대면 전도지를 건네기 어려워진 여건을 고려해 예장 통합 총회 홈페이지에 원본 파일도 함께 공개했다. 국내선교부 총무 문장옥 목사는 26일 "전도지 원본 PPT 파일에 개별 교회의 로고를 덧붙여 SNS 비대면 전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교단을 넘어 전국 교회 모두가 적극적으로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해 해당 교회들을 도울 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교계 지도자들 역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의 노력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함께 협력할 것을 다짐했다.

소강석 전국17개 광역시·도기독교연합회 상임고문은 이날 간담회 후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방역 인종제나 협의체 구성 등 문 대통령과 의미 있는 얘기를 나눴다. 이 부분에 대해 큰 소동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간담회를 마치고 나서면서 문 대통령께 협의체만큼은 꼭 잘 살펴서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나왔다. 한기채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동성애에 동의할 자유는 이야기하면 될 것"이라며 "합법화하는 우려가 없다"며 "동성혼 합법화는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범 진영 논의 과정에서 잘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나 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과 국민일보(사장 변재운)가 손을 맞잡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10개 권역(서울·경기도·8개 지방권역) 4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은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광고와 온라인 전도플랫폼이 결합된 비대면 전도 캠페인이다. 광고는 복음의 전함이 펼쳐 온 '대주 광고

그리스도인 73% "코로나19 방역이 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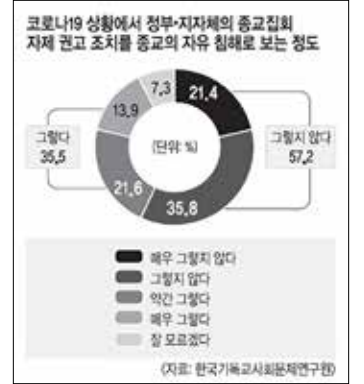
기사연 '정부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 관련 설문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정부의 종교 집회 자제 권고가 종교 자유 침해는 아니라고 보는 그리스도인이 절반을 넘는다. 설문 결과가 나왔다. 종교 자유 침해한 응답은 35.5%였다. 광화문집회 이전의 조사여서 현재의 교회 대면예배 및 모임 금지 상황을 반영한 것은 아니다.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기사연)은 지난달 21-29일 지앤컴 리서치에 의뢰해 개신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패널 활용 온라인 조사를 실시했다. 매년 10월 기사연이 발표하는 '사회 현안 개신교인 인식 조사'의 일환인 이번 조사는 개신교인 인구센서스에 맞춰 비례할당해 표본을 추출했다. 기사연은 "실문 내용 중 코로나19 상황과 한국교회 연관성을 파악할 몇몇 자료를 선별해 송부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종교집회 자제 권고 조치를 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지는가'란 질문에 21.4%는 '매우 그렇지 않다', 35.8%는 '그렇지 않다', 21.6%는 '약간 그렇다', 13.9%는 '매우 그렇다', 7.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종교 자유 침해가 아니란 응답이 57.2%. 침해란 답변은 35.5%다.

기사연은 "종교의 자유 침해로 여겨진다고(그렇다)는 응답률은 교회 내 직분이 높을수록(직분 없는 신자 29.9%, 서리집사/권찰 39.0%, 중직자 49.9%) 높게 나타난다"면서 "정치적으로 보수라고 답한 이들 중에선 정부 및 지자체



의 권고 조치에 대한 당위성을 인정하지 않는 비율이 과반이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87.9%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봤다. 반대로 심각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는 9.9%였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된다'(73.5%)는 답이 가장 많았고, '상당히 두려워한다' 18.7%, '너무 두려워서 일상생활이 안 된다' 0.8%로 각각 나타났다. '전혀 걱정하지 않는다'는 7.0%였다.

경제 활성화와 코로나19 확산 방지책 가운데 시급한 것을 물으니 73.2%가 방역 우선을 택했다. 출석교회의 조처를 묻는 말에는 복수응답 조건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하기(83.9%), 적절한 거리를 띄어 앉기(81.9%), 예배당 입장 시 발열 체크(77.0%) 순이었다.

이번 조사는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1% 포인트다. 기사연이 설문 일부 내용만 발췌해 전달했고, 수도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기 2-3주 전에 작성된 설문이라서 정부가 대응을 잘하고 있다는 여론이 높던 때란 점을 감안해야 한다.

"코로나로 멈춘 통일사역, 선교플랫폼 변화 필요"

통일선교기관 온라인 콘퍼런스 '코로나19가...미치는 영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통일 사역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상반기 각 교회에 개설될 예정이던 통일 선교학교와 세미나 등은 잠정적으로 중단되거나 연기됐다. 코로나19로 인한 '뉴노멀' 시대에 통일 선교 전략에 대한 한국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승실평화통일연구원과 기독교 통일지도자훈련센터는 26일 '코로나19가 통일선교사역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온라인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두 기관은 코로나19가 한국교회에 미치는 영향을 2개월간 연구한 결과물들을 분석해 발표했다.

기독교통일지도자훈련센터장인 허충영 숭실대 교수는 기조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상황을 한국 교회 통일 선교의 위축이 아닌 전회위부의 기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비대면 주일예배를 드리면서 교회의 본질을 찾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코로나19 시대라 할지라도 통일 선교 교육은 중단될 수 없다. 통일 선교 교육이 통일과 북한 복음화를 위해 관심을 높이고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허 교수는 통일 선교 교육의 플랫폼이 새로운 형태로 변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통일세대에 해당하는 유아, 청소년, 청년을 위한 통일 선교 온라인 교육을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며 "통일 선교 전문인들이 수준 있는 영상 강의를 하는 것도 필요하다. 목회자들은 통일시대 정신과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각종 포럼을 온라인 형태

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탈북민과 탈북민 교회에 관한 관심과 지원도 절실하다. 허 교수는 "각 교단이 미자립교회를 위해 나눔을 실천한 것처럼 통일 선교가 필수적 사역이라고 여긴다면 통일 선교 현장을 향해서도 재정을 흘려보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목회자와 탈북민 목회자의 '멘토와 멘티' 관계, 한국교회와 탈북민교회의 협력관계 등 새로운 공동체 형성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의혁 숭실대 교수는 '코로나19 시대의 탈북민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했다. 김 교수는 "20여년간의 탈북민 사역을 반성하고 재점검하며 새로운 방향으로의 전환을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에 따르면 그동안 탈북민 사역은 일반적으로 '성공적인 정착' '신앙 집결' '통일 및 북한선교의 일꾼 준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통일 선교가 교회의 아젠다에 탈북민 사역을 끼워 맞추는 식으로 전개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탈북민이 우선 복음 안에서 하나님 자녀 됨의 풍성함을 충분히 누릴 때 이들이 통일 선교를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탈북민에게 통일 선교 사역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충분히 '듣는 마음'(왕상 3:9)이 필요하다"며 "탈북민에게 우선 중요한 것은 남한에서의 생존과 정착, 그리고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친밀함을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이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게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의 핵심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과 국민일보(사장 변재운)가 공동 주최하고 다·열기도회(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협력한다. 전국 각 지역 성시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도 협력할 예정이다.

AR로 경험하는 천로역정...

예장합동 증강전도지 시연회 개최

애플리케이션(앱) '증강전도 천로역정'을 실행하고 전도지의 QR 코드를 찍자 스마트폰 카메라가 찍고 있는 책상 위로 한 성도가 전신 갑주를 입은 채 순례길을 걷는 3차원의 입체 영상이 나타난다. 천국으로 향해 가는 길목엔 사악한 모습의 아블론은 숲을 마시며 유혹하는 괴물이 길을 막고 방해한다. 그러나 화면에 뜬 칼 모양의 버튼을 누르면 성도는 용감하게 이들을 물리치고 길 끝에 다다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김중준 목사) 총회교육전도국이 28일 서울 강남구 총회회관에

서 선보인 증강현실(AR) 전도지와 앱 '더웨이(The Way)-천로역정'의 한 장면이다. AR은 현실의 이미지나 배경에 3차원 가상 이미지를 겹쳐 보여주는 기술을 말한다.

이번에 발표한 AR 전도지는 총회가 지난 2014년 개발한 AR 전도지 '생명의 빛 증강전도지' 발전시킨 것이다. 당시 전도지는 책자형으로 제작돼 전도자가 옆에서 책장을 넘기며 설명해야 하고 별도의 참여 없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다.

총회는 이를 개선해 책자 없이 QR코드가 인쇄된 카드 한 장만 있

어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자는 스마트폰과 전도지만 있으면 AR 방식으로 내용을 파악할 수 있어 비대면 전도도 가능하다. 답변을 선택하거나 버튼을 누르는 등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몰입도를 높였다.

전도지는 창조와 에덴동산의 선악과, 예수의 재림과 부활, 믿음을 통한 구원, 천로역정, 천국으로 가는 길 등 5단계에 걸친 내용으로 구성됐다. 교육전도국장 노재경 목사는 "특별히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믿음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며 "일방적으로 복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으로서 경건한 삶의 자세까지 제시함으로써 온전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다"고

청년에서 노년까지 맞춤 전도

예장통합 생애 주기별 전도지 제작

"학교도 집도 다 짜증 나나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어른들 역시 불안 가득한 사람이고, 세상은 욕심으로 뒤바뀌었니까요. 하지만 이를 핑계 삼아 자신을 방치한다면 결국 손해는 자기가 봅니다. 굽이굽이마다 행복해질 수 있는 선택을 하며 멋진 어른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 여정을 함께할 좋은 친구, 교회에서 만나보세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국내선교부가 2020년 새로 내놓은 청소년용 전도지 내용이 다. 전도지는 이어 "자신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를 이해하는 것보다

중요합니다"라며 "적성인데 꿈이든 천천히 찾아도 괜찮아요. 자기 안에 갇히지 마세요. 자신을 알고 소통할 수 있다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랑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는 말씀도 소개한다. 교회가 방황하는 청년들에게 친구가 되고 싶다는 얘기다.

예장통합 국내선교부는 청소년을 비롯해 임대를 앞둔 청년, 출산을 앞둔 임신부, 새롭게 맺어진 부부, 삶의 무게가 묵직한 중장년, 평

온한 여생을 꿈꾸는 노인 등 생애 주기별로 내용을 달리한 6종의 전도지(사진)를 제작했다. 40~60대 중년에게 "생의 가운데를 걷고 계신 여러분, 이제는 자신을 돌보아야 합니다"라며 "가족들과 소통하고 집을 나누어 주십시오"라고 권한다. 이어 "삶의 몸도 무거워지는 나이, 중년입니다"라며 "힘이 되는 따뜻한 공동체로 교회가 함께하겠습니다"라고 말한다.

예장통합은 환경, 통일, 위안부, 독도 등 사회 현안을 다룬 전도지 4종도 제작했다. 환경과 관련한 "신앙이란 이름으로 욕망을 합리화하고 있지 않은지 겸허히 성찰하는 한국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전한다. 통일에 대해선 "한국교회는 사적 이익을 위해 두려움을

"행정명령, 형평성 어긋나...선별 적용 필요"

한국교회 지도자들, 문 대통령과 간담회에서 방역 대책 논의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 교회를 상대로 한 정부의 일방적 방역 조치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달했다. 이들은 정부가 모든 교회에 일률적인 행정명령을 내리지 말고 탄력적으로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위한 협의체 구상을 제안했다.

김태영 한국교회총연합(한국총) 공동대표회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 16명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서 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의 진앙지가 된 점에 대해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몇몇 교회 때문에 일어난 일을 갖고 전체 교회에 행정조치를 한 건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방역에 있어서 종교계에 지침을 내릴 때는 형평성, 일관성, 상호성이 있어야 한다"며 "유독 기독교에만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이는 문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공경성에 어긋난다"

고 덧붙였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의 방역 조치에 대해 한국교회 전반이 느끼는 정서를 문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김 대표회장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너무 쉽게 공권력으로 제한할 수 있고, 중단을 명령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려서 크게 놀랐다"며 "정부 관계자들이 종교단체를 영업장 취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중준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 총회장은 "코로나19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강하게 제한을 걸 수밖에 없었다는 점은 이해가 된다"면서도 "그럼에도 일방적인 행정명령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전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많은 교회가 정부의 일률적 행정명령 적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예배 가능 인원 20명 제한 등의 조치를 지역과 교회 규모 등에 따라 선별적으로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교회에 대해서

차별화해 현장예배가 가능하도록 방역인증을 해주고 방역수칙을 따르지 않고 확산되면 개별 교회에 책임을 묻자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태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현장 교회라는 점에 공감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이 최고점을 찍고 있는 상황에서 맞춤형으로 선별할 수가 없다"며 "교회가 너무 많고 교단 밖 교회도 많다.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정부의 행정명령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지만 정부와 한국교회 간 협의체 구성에 대한선 양측이 뜻을 같이했다. 교계 지도자들은 정부당국이 교회와 소통하는 협력기구를 설치해 대책을 세우는 게 어렵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앙정부에선 한교총과 중앙방역대책본부 중심이 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는 지역교회협의회와 협의체를 맺어 방역 협조체제를 만들어 소통하며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게 하자는 취지다.

문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참모들에게 관련 사항을 검토해 볼 것을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면 예배가 어려운 교회에 대해서도 정부 차원에서 플랫폼을 마련

복음광고 실은 버스·택시 전국 누빈다

10개 권역, 48개 지역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

기독교 선교 역사는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예비해 둔 도구로 복음의 길을 닦아온 기록이다. 시대와 환경, 상황에 따라 예비된 자들은 저마다 예비된 도구로 선교의 물결을 만들어 왔다. 지금까지 선교 전도는 '콘텐츠' '만남'이 핵심요소

였다. 믿지 않는 이들을 직접 만나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어떻게 접할 수 있을지가 전도의 첫 관문이었다. 하지만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만남의 단절을 초래했다. 감염에 대한 두려움은 '대

면 방식'을 중심으로 이뤄진 선교 앞에 놓고 두꺼운 장벽을 쌓아 올렸다.

'위드 코로나' 시대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겪고 있는 지금 교회는 외적으로 복음전파 환경 변화의 위기를 겪으며, 내적으로는 상처받고 침체해 있다. 새로운 상징적 전환을 통해 기독교 영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동력을 재점화해야 한다. 한국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하

나 돼 회복할 수 있도록 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과 국민일보(사장 변재운)가 손을 맞잡고 캠페인을 전개한다.

전국 10개 권역(서울·경기도·8개 지방권역) 48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 캠페인'은 대중매체를 통한 복음광고와 온라인 전도플랫폼이 결합된 비대면 전도 캠페인이다. 광고는 복음의 전함이 펼쳐 온 '대주 광고

선교 캠페인' '대한민국을 전도하다 캠페인' 등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비대면 전도의 효과적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대면 접촉이 제한된 상황에서 정보기술(IT) 선교 플랫폼은 광고를 접한 사람들과 온라인으로 소통하며 복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IT 플랫폼을 통해 신앙적 소통을 이

룬 이들을 지역교회로 연결하는 게 '대한민국 방방곡곡 복음심기'의 핵심이다.

오는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은 복음의 전함(이사장 고정민)과 국민일보(사장 변재운)가 공동 주최하고 다·열기도회(운영위원장 김은호 목사)가 협력한다. 전국 각 지역 성시화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지역 교회들도 협력할 예정이다.

선교의 창 (153)



송종록 목사 (크로스선교전략 연구소)

세계의 4대 종교

인류는 피조세계에 존재할 때부터 종교적이었다. 동양에서 종교(宗敎)라는 용어는 불교에서 왔으며 “옳음 되는 가르침”으로 해석된다. 반면 서양 문명의 religion은 라틴어의 religare 혹은 relegere에서 나온 말로 “다시 묶다 혹은 다시 읽다(생각하다)”를 뜻한다. 아무튼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인류는 BC 4000-3000년 경 큰 강 유역에서 종교생활을 하며 문명의 싹을 틔웠다. 나일 강변의 이집트문명, 티그리스·유프라테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문명, 인더스 강 유역의 인도문명, 황하 유역의 중국문명의 면면을 살펴보면 종교가 근간을 이루고 있음을 보게 된다. 이렇게 4대 문명을 중심으로 인류는 지구촌의 사방팔방으로 급속히 퍼져 나가면서 다양한 형태의 종교를 창안해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촌에는 대다수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 위키백과(ko.m.wikipedia.org) 통계에 의하면 2020년 5월 23일 기준 “77억86백만 명의 인구 중 기독교 24억 명, 이슬람교 18억 명, 힌두교 11억 명, 불교 5억 명”이라고 했다. 이는 무엇을 말하는가? 절대 다

수인 75%가 4대 종교를 믿고 있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수많은 종교와 이단들이 있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나라 확장 차원에서 2/3 이상의 인구들이 신봉하는 세계 종교의 기상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1. 기독교(Christianity)

기독교는 하나님의 천지창

갈라진 것이다. 이후 AD 1517년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점으로 신학과 교회론 논쟁을 거쳐 서방교회는 현재의 천주교와 개신교로 나뉘어졌다. 그 후 개신교는 성경해석과 신앙의 양태에 따라 여러 교단으로 분화되었다. 개신교와 가톨릭교는 15-17세기에 항해시대의 탐험을 따라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등으로 선교를 하며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기독교는 좁은 의미에서 개신교(Protestantism)만을 의미한다. 허나 넓은 의미에서는 가톨릭, 동방 정교, 개신교를 포함한다. The World Christian Encyclopedia에 따르면, 세계의 기독교 신자의 교파별 비율은 가톨릭 13억 명, 개신교 8억5천만 명, 동방정교회 2억5천만 명 정도라고 한다.

2. 이슬람교(al-islam)

이슬람(Islam, 回敎)은 흔히 ‘이슬람교’라고 불리는 종교의 이름이다. 이슬람(al-islam)은

리프인 아부 바르크를 시작으로 제3대 칼리프인 오스만이 완성해 집대성됐다. 코란에도 기존 성경 내용이 포함돼 있지만 무슬림(이슬람교인)들은 1400년 전 무함마드의 시대에 하나님의 계시로 쓰인 코란만이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한다. 이슬람 교리는 매우 단순하게 여겨질 만큼 명료하게 정립되어 있다. 이슬람교리는 이만(6가지 종교적 신앙)과 이슬람의 다섯 기둥(5가지 종교적 의무)을 기본으로 한다. 이슬람의 대표적인 종파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중심이 된 수니파로서 전체 무슬림의 80-90%이다. 이란이 대표 하는 시아파는 10-20%를 정도이다.

3. 힌두교(Hinduism)

이는 신화를 기반으로 발생한 인도의 민족종교이다.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에서 널리 전파되어 있다. 힌두교의 발생은 고대 인도의 종교 사상인 “베다”와 인도신화에서 비롯한

체에 더 가깝다. 이로서 힌두교는 교주(敎主)가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원주민을 다스리기 위해 종교적인 요소를 넣어 사회계급 체제인 카스트제도를 탄생시켰다. 이 제도는 자신의 업보에 따라 죽어도 다시 태어난다는 힌두교의 ‘윤회사상’이 접목돼 있어 이를 속명으로 여기고 있다. 힌두교는 기독교와 이슬람교 다음 가는 세계에서 3번째로 신도 수가 많다.

4. 불교(Buddhism)

불교(佛敎)는 기원전 6세기 경 사카족의 왕자로 태어난 석가모니(Siddhartha Gautama)에 의해 현 네팔과 인도 북동부 지방에 있던 마가다(Magadha) 왕국을 중심으로 성립되었다. 불교는 그가 펼친 가르침이자 또한 진리를 깨달아 부처(깨우친 사람)가 될 것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오늘날까지 25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불교는 다양하고 복잡한 종교적 전통을 지니게 되었다.

거의 없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불교에도 종파가 있다. 대표적인 것은 스리랑카·미얀마·태국의 소승불교와 중국·한국·일본 등의 대승불교, 네팔, 티베트, 외몽고의 밀교 등으로 구분한다.

맺음 말

이상의 세계 4대 종교 이외에도 지구상에는 수많은 종교들이 있다. 문제는 “어떠한 종교가 참이나” 하는 것이다. 모든 종교인이 자기가 믿는 신앙에 대해 주관성이 강하기 때문에 비교종교학에서는 후설(Edmund Husserl)의 현상학에서 나온 용어로서 에포케(epoche)라고 부르는 “판단중지”를 중요시 한다. 이는 어떤 종교현상과 종교를 연구할 때 자신의 가치관과 주관적 생각을 중단하고 일시적으로 타종교인이 되어 그 종교 안으로 몰입한 후, 다시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주관적으로 체계화하고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핵심은 경전(經典)을 통해 평가하는 것이다. 이슬람교의 ‘코란’, 힌두교의 ‘베다’, 불교의 ‘불경’은 저마다 신앙하는 대상과 지향하는 가치와 교훈과 논리체계가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인간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없다는 한계성에 부딪힌다. 인간에 의해 집성된 이론들이 어찌 생명이 있을 것인가? 오직 기독교의 성경만이 참 진리요 길이요 생명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더욱 확신에 찬 신념 속에 성경말씀을 따라 가되 그렇다고 타 종교를 함부로 정죄하거나 폄하하는 태도는 바르지 못하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태도로 저들을 대하며 구원의 도를 설교해야 할 것이다.

jrson007@hanmail.net

인류는 시초부터 종교적이었습니다. 세계 4대 종교의 인구를 합산하면 58억이나 된다. 크리스천은 세계종교의 기상도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조 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해하는 유형적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오순절 성령 감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독교회는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부터 서서히 유대교와 분리되기 시작했다.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는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내려 로마제국에서 기독교를 공인했다. AD 1054년에는 다양한 교회 내 갈등으로 인하여 대분열이 일어났다. 바로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알라에게 복종하다”라는 뜻으로 “복종·순종”을 의미하는 ‘아살라마’(asalama)에서 파생하였다. 이슬람을 믿는 신자는 남자일 경우에는 “무슬림”이라고 하고 여자일 경우에는 “무슬리마”라고 한다. 이슬람은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다고 믿는 유일신 종교이다. 이슬람의 경전은 코란이며, 이는 예언자 무함마드가 천사가 브리엘로부터 받은 알라의 말을 기록한 것이라고 한다. AD 632년 그가 죽은 뒤 제1대 칼

베다 사상은 기원전 1500년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베다는 ‘알다(知)’라는 뜻을 가진 힌두교의 경전으로서 고대 인도에서 내려오는 신화·종교·철학적인 문헌으로 힌두교에서 가장 오래된 경전으로 알려져 있다. 힌두교는 여러 신들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다신교적 일신교(택일신교 또는 일신승배)이다. 힌두교는 종교로도 볼 수 있지만 인도의 사회·관습·전통 등을 포괄하는 생활방식이자 인도문화의 총

불경은 불교를 창시한 석가모니가 설법한 교법을 기록한 경전이다. 그의 설법으로 인해 생긴 수많은 경전 중 불자들은 일반적으로 “금강경”, 돌아가신 분들을 위한 “지장경”,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부처님 말씀을 전한 “묘법연화경” 세 가지를 주요 경전으로 꼽는다.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 천주교 이슬람교는 전쟁을 많이 하는 반면, 불교는 자기 깨달음 중심의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가 타 종교와 전쟁하는 일이

드라마 예언서 (6)



김덕수 목사 (하늘소망교회 담임 / 생터사역원 LA지부장)

지난 시간 우리는 이사야로부터 시작하여 남방 유다 말기에 활동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미가서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의 배경

미가(Micah)는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미1:1, 사1:1). 미가는 아마도 이사야의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미가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미4:2, 사2:3). 미가서는 이사야서와 마찬가지로 전 반부(1-3장)는 심판의 메시지와 후반부(4-7장)는 구원하실 것에 대한 말씀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미가서의 내용

남방 유다의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미가에게 임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미1:1).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의 때에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는 것이 마치 불 앞에서 녹아내리는 밀납 초(wax)와 같을 것입니다(미1:2-4). 그들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미1:5) 북

미가서: 이사야와 같은 시대...1-3장 심판, 4-7장 구원의 메시지

방 이스라엘은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타락했고, 남방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타락했습니다. 그들은 새긴 우상들을 만들었고, (영적, 육적) 음행을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미1:6-7). 그것을 각 성읍에도 권고하십니다(미1:10-16). 그들의 죄악은 지도자들로 부터 시작됩니다. 그들은 침상

에서 악을 꾀하며,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며, 백성들의 산업을 강탈합니다(미2:1-5). 그러해서 그 패역한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너희 예언자는 예언하지 마라. 이런 일은 예언할 일이 아니다. 너희들은 예언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욕하는 것일 뿐이다’라고 합니다(미2:6). 미가 선지자는 이에 대하여 선지자가 ‘포도주와 독주를 풍성히 마실 수 있는 풍요와 편안함’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미2:11).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아야 합니다(미3:1).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백성의 가족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습니다(미3:1-4). 선지자들은 대가를 받으면 평강을 외치고, 대가를 주지 않는 사람들

미가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구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가서 4장부터 7장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선포하는 신약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언서를 읽는 관점인 ‘심판하시나 돌이키면 구원하신다’는 안경을 끼고 읽어 봅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이르러는 하나님의 성전의 산들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 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 분이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다. 우리가 그 분이 가르쳐주시는 길로 행할 것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

서 5절까지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개한 후에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언합니다. 베들레헬은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일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분이 베들레헬에서 나오실 것입니다(미5:2). 그 분이 오셔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선한 목자로서 목축을 하시며, 우리들의 평강이 되실 것입니다(미5:4-5).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그분의 선하심을 알리시려고 변론을 하시는 내용이 6장입니다.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재판에서 고발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피고인은 이스라엘 백성이며, 배심원단은 산과 언덕과 땅입니다(미6:1-2). 하나님께서 얼마나 저들을 야기하고, 철저히 길로 행할 것이다’고 말할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끌어 내어

서도 ‘의롭게’ 행하지 않았으며 그들이 지은 죄로 인하여 징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미6:3-5).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럴듯한 번제물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미6:8).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범죄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7장입니다. 절망입니다. 나는 열매가 하나도 달리지 않은 앙상한 과일나무와 같습니다. 그 앙상한 과일나무처럼 이 땅에 신실한 사람이 한 사람도 남아 있지 않습니다. 남아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사람을 죽이려는 자들과 이웃을 울가미에 걸리게 하려는 자를 뿐입니다(미7:1-2). 모두가 죄인들입니다(미7:3-6).

그러나 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기다립니다(미7:7). 그 주님께 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그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회복시켜주시는 것입니다(미7:8-13). 주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며, 진노를 거두시며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십니다. 주님 같은 분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미7:14-20)?

dsukim@gmail.com

개혁의 땀방울...

(7면에서 계속)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완성하신 복음은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다. 그 안에서

어떤 특별한 상황 속에서도 변할 수 없는, 성경에 분명하게 계시된 정체성과 기본구조를 발견할 수 있다. 정치신학, 해방신학, 과정신학, 화해신학 등 상황화의 산물은 모

두 혼합주의와 상대주의의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성경진리의 객관성을 무시하고 그 내용을 특정 상황에 주관적으로 끼워 맞추는 과오를 범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어떤 경우라도 상황적

대주의는 단호히 거부되어야 한다. 도리어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주어질 복음을 변형시키지 않고 어려운 상황에 적용시키는 것이 이 시대 교회의 사명이다. 투쟁

과 혁명적 방법을 통해 상황을 먼저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선 영혼을 살리는 복음을 통해 변화를 받은 자들이 사회 각 계층에서 책임을 질 수 있게 해야 한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

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과 그의 통치 방법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이 세상이 모든 것에 대하여 영원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 covenant@yahoo.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캄보디아 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월 사회적 참여에 대한 바른 태도(딤후2:15) 찬375장

교회의 신실한 신앙은 사회적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첫째, 목사 자신이 먼저 그 신분을 지켜야 합니다. 책망의 사역을 통하여 영적 권위를 귀히 여기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목적입니다.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충성된 사람을 만들기 위하여 목사 자신의 분이 기본이어야 합니다.

둘째, 위정자에 대한 권면을 힘써야 합니다. 그들로 하나님의 권위를 두려워하여 선행의 도구로서 모든 일에 힘쓰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사회의 변화를 책임지도록 부름 받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함으로 평안 가운데 사는 사회가 되게 해야 합니다.

화 성경적 목회(딤후3:1-5) 찬519장

성경적 목회의 도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목회자가 가진 경건의 태도를 기억하는 일입니다(2). 비방과 다툼을 금하고 모든 일에 온유함을 나타내야 합니다. 온유한 목회자가 땅을 정복합니다. 둘째, 은혜로 구원받은 변화된 생활을 경험한 그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3-4). 과거에는 정욕과 향락의 종으로 악독과 투기가 충만하여 가증된 삶과 미움으로 채워진 어두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의 변화는 그리스도의 긍휼과 성령의 중생과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개인의 영적 체험은 제자로서 사용할 중요한 도구입니다. 개인의 구원과 성령의 능력이 없이 참된 목회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자신의 구원의 경험으로 참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루어갑시다.

수 목회의 주권자이신 성령님(딤후3:5) 찬358장

목회란 창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사역으로 가장 영광스러운 일로서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진행되며 완성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두 용어로 설명합니다. 첫째, 성령의 중생의 씻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중생은 거듭남을 가리킵니다. 이런 영혼의 부활로 시작한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교회생활에 성

령의 인도를 받는 자들이며 성령의 세례로 씻음 받은 영혼이므로 항상 성령의 역사로 살아갑니다. 둘째, 또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말합니다. 한번 시작한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날마다 새롭게 해 줌된 부흥으로 나가게 하십니다. 목사의 사역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아니므로 교회를 향하신 성령의 지시를 순종해야 합니다.

목 목회에서 강조할 일(딤후3:6-8) 찬373장

목사는 교회를 섬길 때 3가지를 강조해야 합니다. 첫째,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6).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이기에 때를 따라 배부시는 그 은혜를 갈구하며 충만히 받게 해야 합니다. 둘째, 영생의 소망을 따른 상속자가 돼야 합니다(7). 우리의 구원의 목표인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기업을 받아 누릴 상속자가 되는 소망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

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기업이 준비되었기 때문입니다.

셋째,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8). 가장 아름답고 가장 유익한 영적 선행을 이루기를 힘쓰라고 하십니다. 자기의 만족에서만 머물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덕을 세우고 영적 선행을 끼치는 자리에 나가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이미 복음의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금 우리가 피할 것(딤후3:9-11) 찬535장

교회에서 목사가 경계할 일은 말과 관련된 일이 많습니다. 야고보가 말한 대로 혀가 불과 같기 때문에 모든 일에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첫째,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9). 거짓교훈을 방어하고 설명하고 공격하는 변증은 필요하지만 성경을 떠나 인간의 탐욕에 끌린 어리석은 변론을 피해야 합니다. 둘째, 분쟁을 이루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변론은 편 가르기를 하기 쉬워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가져옵니다(10-11). 이것

은 당사자는 물론 듣는 자들에게조차도 상처를 주기에 무익합니다. 셋째, 이단교훈을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는 바른 교훈에 서야하기 때문에 성경을 이용한 그릇된 해석 곧 이단교훈을 경계하고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사도는 한 두 번 권면하고 멀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만큼 이단교훈은 교회를 바로 떨어뜨려 부패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토 사도의 영적 지도력(딤후3:12-15) 찬389장

교회는 영적지도자의 영력에 따라 좌우됨을 사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첫째, 사도의 은혜를 통한 지도력이어야 합니다. 수시로 피차 문안함으로 말씀 중심의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12-15). 영적 지도력은 오직 말씀을 깨달음에서 찾아옵니다. 둘째, 말씀의 우선순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율법 교사를 미리 보냄으로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려 했습니다(13). 셋째, 좋은

일이 힘쓰기를 가르쳐야 합니다(14). 수직적인 바른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로 나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훈인 성경에 깊이 착념하여 말씀의 열매 곧 성령 충만한 열매가 일어나 항상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해야 합니다. 지도력이 위기를 당한 우리 시대에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참 교회를 이루어갑시다.

알기쉬운 IT칼럼

Host로서 Zoom 사용하기



윤승준
(재미있는 IT 대표, IT전문선교사)

Post Corona의 가장 큰 특징은 Contactless 즉 비대면입니다. 사회 생활을 하면서 만남이 없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존의 얼굴을 보는 만남 대신 온라인 만남으로 대체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 질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온라인상에서의 만남은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카카오톡 화상통화가 대표적인 것입니다. 여기에 사진이나 비디오를 잘 활용하면 상당한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데 그에 따라 집단이 얼굴을 보며 회의를 해야 하는 화상회의가 아주 활성화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날 것인데 지금 학교의 교육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가 잘 준비한다면 오히려 오프라인 교육보다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음도 증명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물론과는 영업을 비롯한 일상의 모든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Guest뿐 아니라 Host로서 Zoom과 같은 화상통화는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Host로서 Zoom 사용하기에 대해 공부하겠습니다.

Zoom 설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스마트폰에서는 Appstore 혹은 Playstore에서 Zoom을 검색하여 설치합니다. 컴퓨터에서는 zoom.us에 들어가서 제일 아래 부분의 다운로드에서 설치하면 됩니다.

Host로 Zoom을 사용하기 위한 첫 단계는 Zoom에 가입하기입니다. Guest로 사용하려면 Zoom만 설치되어 있다하더라도 문제없었지만 Host가 되려면 반드시 가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입은 본인이 사용하는 Email과 Password를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가입하지 않고 로그인하려 하는 사람이 많은데 로그인이란 가입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절차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입이 끝나면 화면에 4가지 메뉴가 나타납니다. 새회의, 참가, 예약, 화면공유입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새회의입니다. 이것을 누르면 바로 회의 만들 수 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컴퓨터 오디오로 참가가 보일 것이고 그것을 누르면 됩니다. 바로 아래 작은 글씨로 스피커 및 마이크 테스트가 있는데 처음하는 분은 이것을 눌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노트북에는 마이크와 스피커가 있지만 데스크탑 컴퓨터는 이것이 없어 별도의 마이크와 스피커를 달아야만 합니다.

내 기기들이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화면에 내 얼굴이 나오고 시작하면 회의에 초대

할 사람에게 초대장을 보내야 합니다. 일단 Zoom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메뉴가 나오게 하려면 귀퉁이에 마우스 혹은 손가락을 가져가면 나온다는 것입니다. 왼쪽 윗쪽에 'i'가 보일 텐데 거기에 마우스를 가져가면 회의 정보가 나옵니다. 그걸 누르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서 초대링크를 복사하여 참가를 원하는 사람에게 카카오톡, 이메일 등으로 보내면 됩니다.

우측상단의 메뉴는 전체화면으로 바꾸기입니다. 좌측하단의 왼쪽 첫 번째는 오디오참가입니다. 이 부분을 아직 누르지 않았다면 오디오참가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누르면 내 말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마이크를 중지시키려면 음소거를 누르면 빨간 사선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나타나며 내 마이크는 꺼지게 됩니다. 마이크 바로 오른쪽에 있는 선택버튼을 누르면 여러 가지 메뉴가 보일 것입니다. 만일 내가 별도의 마이크가 스피커를 사용하고 있다면 거기서 그 장치들을 선택하면 됩니다.

두 번째 메뉴는 비디오에 관한 것입니다. 비디오를 끄면 내 화면은 나가지 않습니다. 역시 옆에 있는 선택버튼을 누르면 메뉴가 나오는데 별도 카메라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아래 가상배경이 보입니다. 가상 배경이란 문자 그대로 내 배경을 가상으로 선정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으로 제공하는 배경 중 선택할 수 있고 내가 찍은 사진을 이용하여 나만의 배경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가상배경 선택 우측의 +를 눌러 이미지나 비디오를 선택하면 됩니다.

다음 회의는 보안입니다. 보안을 누르면 회의잠금이 나오는데 그건 회의에 아무도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것이라 별 의미가 없습니다. 대기실 사용은 아주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바로 직접 참여하게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들을 대기실에서 대기하게 한 후 일괄적으로 혹은 선별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실제 사용할 때 이 기능은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에게 다음을 허용에는 모두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가자 메뉴는 지금 현재 참가하고 있는 사람과 대기실에 있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공유는 아주 중요한 메뉴입니다. Host의 화면이나 Whiteboard도 공유할 수 있지만 참가자의 화면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게스트가 이 기능을 사용하게 하려면 호스트가 공유 옆의 버튼을 눌러 여러 참가자가 동시에 공유를 체크해 주어야만 합니다.

공유버튼을 누르면 무엇을 공유할 것인가를 선택하면 됩니다. 화면을 공유할 수 있는데 화면에 미리 준비한 PPT와 같은 자료를 동작시키면 이 화면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공유되는 것입니다. 화이트보드를 공유하면 칠판을 보여주고 거기에 판서를 하며 강의할 수 있습니다. 펜이 있는 태블릿이나 삼성노트와 같은 스마트폰의 노트기능을 이용하면 아주 효과적입니다.

나머지 기능들과 Zoom을 보다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실제 방법은 다음시간에 하겠습니다. sjyoon7231@gmail.com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습니다"

가슴으로 쓴 이야기는
세월이 가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이 남긴 사랑의 이야기들

기억은 추억이 되어
더욱 소중합니다

최고의 예를 드리는
하늘 가족, 중앙 장의사

머리카락 한올까지
마지막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 사랑의 꽃이 됩니다



마지막 정성속에 함께 보낸 31년
Since 1988, 최초의 한인 공인장례사

모든지점 - 대형 파랑장 원비

Central Funeral Home: BongHo Ha F.D. NJ LIC 4569 | Gina Chong F.D. NJ LIC. 4504 | John Chong F.D. NJ LIC 5079

NY: 샌퍼드 애비뉴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 Ridgewood 809 Broad Ave., Ridgewood, NJ NJ: 잉글우드 129 Engle St, Englewoo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뉴욕 | 718. 353.2424 뉴저지 | 201.945. 2009

팬데믹 시대의 선교 ... 어떻게 하고 있나?

(6) 어린이전도협회

대표 여병현 목사

어린이 영혼구원 사역 40년...전도와 교육 사역에 헌신

어린이 영혼구원을 위해 헌신을 다해 온 어린이전도협회 여병현 목사. 매 절기마다 교사 세미나를 통해 교사들 교육과 자료를 제공하며 어린이 전도를 위해 40년째 달려오고 있다.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달랐다. 팬데믹으로 인해 부활절 세미나도, 여름

성경학교를 위한 세미나도, 어린이 연합집회도 개최할 수 없는 안타까움을 겪어야 했다. 본지는 여병현 목사를 만나 어린이전도협회의 사역을 들어보았다.

는 것인데 성도들의 신앙마저 흔들림으로 인해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줄어 들고 있고 팬데믹 후에 적게는 20%, 많게는 30-40%가 교회에 출석을 하지 않고 지금처럼 편안하게 인터넷 예배나 유튜브 예배를 선호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라고 지금의 시대를 표현했다.

실천이기 때문이라고. 한편 그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부당국에서 지시하는 예방수칙을 잘 지키고 따라야 한다고 강조한다.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이 병에 걸리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은 이웃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어린이 전도 ...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

그럼으로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확신하게 한 다음 그들을 성경적인 교회로 인도해 교회 안에서 성장하도록 돕는 전도를 중심으로 한 사역이다.

경에서 찾았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녀 교육의 주체를 세 영역에 맡긴 것을 볼 수 있다고 한다.



여병현 목사

“한 어린이를 품에 안고 축복 하셨던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린이들도 사랑하시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사람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복음을 듣고 믿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린이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성령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어린이 전도는 그의 일생을 구원하는 일입니다”라고 말하며 여 목사는 어린이들을 향한 전도의 중요성부터 피력했다.

두 번째로는 교육사역을 소개했다. 전도자 훈련, 찬송/울동학교 세미나, 교사대학, 학부모 세미나, 절기 교사 강습회 등을 통해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교육 사역이다.

첫째는 가정에서 믿음의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하나님만 믿고 섬기며 언제나 함께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코람데오의 신앙교육을 철저히 시키라고 명령하셨다고 말한다.

팬데믹 시대를 보내는 여 목사는 “갑작스럽게 닥쳐온 COVID-19로 인해 지금까지 해오

아울러 여 목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리라 믿지만 문제는 교회관이 흔들릴까하는 걱정입니다. 지금도 인터넷 예배를 통해 소통은 하고 있지만 교회 교역자나 교사보다 부모님들의 영향이 절대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들이 있는 부모들은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동안만이라도 더더욱 큰 관심을 갖고 부모이자 교사로서 역할을 맡아 교회 학교의 지침을 잘 따라 자녀들의 신앙성장을 도와야 합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만약 교회 예배와 교육이 돌이킬 수 없다면 현실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방법들을 찾아야 되는데, 인터넷 예배를 하는 좋은 여건을 갖고 있는 교회들도 있고 많은 교회들이 장년 예배는 SNS를 통해 진행하고 있지만 교회학교 예배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많다는 것.

이 외에도 교회 협력사역과 단기선교 사역을 지원하고 있다. 어린이부흥회, 교사훈련, 학부모 세미나, 성경학교 강습회와 헌신예배 등을 통해 교회를 섬기고 교회

셋째는 전도와 교육자료 보급하는 사역이라고. 전도자들과 교역자 및 교사들이 효과적으로 신앙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전도와 기독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둘째는 회당 교육 중심을 꼽았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교육으로 해석해도 무리가 아닐 것 같다. 자녀들을 매일, 매주 회당으로 모아 자라나는 세대

교회의 예배는 반듯이 회복돼야

“성경의 대 강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할 수만

이런 현 상황 속에서 어린이 전도협회는 한인교회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해 교회들을 섬기고자 섬기는 교회의 담당 교역자나 교사들이 Zoom이나 YouTube를 통해 손쉽게 응대해 예배와 성경공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콘텐츠 개발과 준비를 하고 있다.

기도와 후원 요청

여 목사는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교파를 초월해 복음적으로 사역하는 어린이 전도협회가 많은 이민 교회들을 돕고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전도와 교회학교 교육에 필요한 자료들을 개발하고 제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도록 그리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준비할 오피스가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관심을 갖고 협력해주셨으면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지만 매월 전도와 교육사역과 협회 운영에 필요한 물질들이 잘 공급되도록 기도해주시고 동참해주시기를 바란다”며 교회와 성도들의 협력을 당부했다.



2019년 바일 캠프를 마치고 기념 촬영

Zoom이나 YouTube 통해 손쉽게 예배와 성경공부 진행할 수 있는 콘텐츠 개발 준비 전도자훈련, 찬송/울동학교 세미나, 교사대학, 학부모 세미나, 절기교사강습회 등 진행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LA한인지는 1981년에 시작돼 미국내 한인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전도하며 한인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기 위해 교사 강습회와 전도자 훈련, 학부모 교육사역들을 이어오고 있다.

어린이전도협회를 돕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 어린이, 청소년 선교를 이어가는 것도 사역의 하나.

둘에게 유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쳤다.

던 오랜 전통과 방법들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어야 하는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효과적인 방법들을 찾아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행히 라이브나 유튜브를 통해 그런대로 예배 형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리 바람직한 교회의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의 본질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

있다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하는 여 목사. 그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재앙 앞에서 크리스천 모두가 회개하고 엎드려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바이러스에 너무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자비와 사랑과 보호하심을 의지하며 교회 공동체의 예배는 회복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것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병현 목사는 1981년 서울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사역을 시작해 1985년 원주지회를 개척해 사역하다 1990년 9월 한국에서 미국 어린이전도협회 한인지회 선교사로 파송 받아 지금까지 어린이들과 청소년 선교를 위해 40년 동안 한길을 걸어오고 있다.

▲어린이전도협회 연락처: (213)-382-1544 (이성자 기자)

전도와 교육 사역...교육 자료보급

뿐만 아니라 단기 선교팀들의 어린이 사역에 필요한 자료와 교육을 통해 효과적인 선교가 이뤄지도록 섬기고 있다.

셋째로는 이스라엘 20세 이상 되는 성인들은 모두가 다음 세대들에게 신앙교육을 시켜 믿음을 계승해가야 할 책임을 부여했다. 그러기에 어린이, 청소년 전도와 신앙교육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피할 수 없이 당연히 해야 할 책임이자 사명이라고 강조한다.

팬데믹으로 대 전환기 맞아

어린이전도협회는 전도사역을 첫 번째로 꼽았다. 가정과 일반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새소식반 전도 프로그램과 5일 클럽 전도 등 다양한 전도 프

어린이 전도와 교육 누가 해야 하나

이처럼 어린이 전도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를 여 목사는 성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교육학 박사 Ed.D/목회학박사 D.Min/교육목회학박사 D.Ed.Min
목회학석사 M.Div/성경적상담학 석사 MABC/기독교교육학 석사 MACE/신학연구석사 MTS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600명 이상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1-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할렐루야 2020 대뉴욕복음화대회

HALLELUJAH NEW YORK EVANGELICAL CRUSADE

“미래를 향해 함께 갑시다”
“Let's go together for the future!”

강사 황성주 목사

- * KWMA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부이사장
- * 사랑의병원 병원장
- * 꿈이있는교회 담임목사
- * 꿈의학교 이사장
- * (사)국제사랑의봉사단 설립자
- * (주)이룸 회장
- * 미 남침례교단

강사 마이클 조 선교사

- * 현 IM선교회 대표
- * 현 IEM국제학교 교장
- * 현 한국 다음세대 살리기운동 본부장
- * 현 필리핀 ANTS 신학교 학장
- * 현 IM교회 담임목사

9.18(금)-20(주일)

금,토 7:30 PM, 주일 5:00 PM

목회자 평신도 세미나

강사: 황성주 박사
9.19(토) 10시-12시 | 프라미스교회

청소년 복음화대회

9월 25일, 26일
프라미스교회 주차장

● 장소: **프라미스교회** (허연행 목사 사무)
130-30 31st Ave., Flushing, NY 11354

“반드시 사전에 예약해 주세요!” (예약인원 300명)

● **You Tube** 온라인 생방송

< 문의와 접수 >
교협 718-279-1414, nyckcg@gmail.com
총무 이창종 목사 917-399-6754
서기 문정웅 목사 917-972-0210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The Council of Korean Churches of Greater New York
244-97 61 Ave., Little Neck, NY 11362 • Tel. 718-279-1414 • www.nyckcg.org • nyckcg@gmail.com

대회장 양민석 목사
부대회장 문석호 목사 손성대 장로
준비위원장 김희복 목사